





한동인 Magazine

Vol. 5

Handong IN은 한동 안에서의 많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의 'In'과
한동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간다는 '人'의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한동인 Magazine은 연2회 발행되며 한동인 Newsletter는 학기 중 매월 발행됩니다.

발행처 (학)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기획 김은영(후원팀), 김신균(대외협력팀)

글 학생기자(김노현, 이해정, 윤예준, 한지혜, 김확정)

사진 이완, 학생기자(서동선, 이영건)

디자인 디자인인사이트



CONTENTS

Special Theme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	2	한동툰	찾아봅시다 한동인	30
People	네오 플레이 차이나 신동원 대표	6	갈대상자	한동나눔 간증 공모전: 이샤론	31
	학생지원팀 김충만 교직원	8		한동나눔 간증 공모전: 조혜진	34
	맑은 시네마 하민호 영화감독	10		팀워크 장학생들의 감사	36
Inside	한동을 이끄는 힘 “기도”	12		법학도 테레페 사헤루	38
	토레이 칼리지 문화의 밤	14		이선기 후원자의 편지	40
	제41회 순결서약식	16		온누리교회 양재캠퍼스 권사님들의 사랑	42
Focus	나눔과 정직이 만든 따뜻한 한 끼의 위로, 한동만나	18	Community	장순홍 총장 동정	44
	처음으로 세워진 한동대 여호수아 장학생	21		김영길 명예총장·글로벌후원회장 동정	44
	자유학기제, 대학 교육에 새로운 바람	24	News	단신모음	45
	뮤지컬 <러브트릴로지: 청춘>	26			
	한동대학교 총동문회, 장학금 및 멘토링 사업 추진	28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 개최

한동대 등 4개 기관 주관, '세계시민교육' 주제로 3일간 열려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gether

GYEONGJU, REPUBLIC OF KOREA
30 MAY-01 JUNE, 2016

— THE 66TH —
UN DPI / NGO
CONFERENCE

“이번 유엔 DPI-NGO 컨퍼런스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 수 있도록 노력한 한동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의 훌륭한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컨퍼런스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기조연설

초여름이 시작된 지난 5월 30일,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온 4천여명의 참가자들이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로 모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네 번째 목표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의 세부 목표인 '세계시민교육'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자리다.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와 유엔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회, 드림터치포움, 한국 NPO공동회의가 함께 이번 행사의 주관을 맡았다.

특히 한동대 장순홍 총장은 이번 컨퍼런스의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행사 기획을 담당했다. 장순홍 총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시민 사회의 앞선 역량이 세계에 소개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유엔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주도해 나갈 SDGs의 첫 해인 올해에 한국이 개최국이 되어 더욱 그 의미가 크다”라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크리스티나 갈라크 유엔 공보국 사무차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된 개막식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황교안 국무총리, 김관용 경북도지사, 장순홍 조직위원장, 한동대 초대 총장인 김영길 유엔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회회장과 세계 각국에서 모인 다양한 NGO 대표들의 기조연설로 이어졌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내 삶의 모토이다”라고 하며 “나는 유엔 기증 교과서로 공부했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은 인권이자 우



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이번 컨퍼런스의 중요성을 역설해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김영길 초대 총장 또한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한동대를 비롯한 주최측에 감사하다”며 “이번 NGO 컨퍼런스는 세계시민교육에 길고 긴 논의의 터널을 지나 실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시민교육’에 입각한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과 이슈를 논하는 교류의 장

유엔 NGO 컨퍼런스는 유엔 공보부(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PI)에서 주관하며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협력하에, 전 세계 NGO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 사회의 주요 문제와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 본래 유엔 NGO 컨퍼런스는 60차까지는 미국 뉴욕 소재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나,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61차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와 지역, 기관과 단체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개최 되었다.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린 제66차 컨퍼런스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대한민국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세계시민교육’은 2015년 유엔에서 새롭게

내놓은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일환이다. 세계 시민을 길러낸다는 목표 아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목표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젊은이들의 안전한 학습 공간, 청년의 역할, 시민사회와 인권 교육, 에너지와 기후변화까지 광범위한 국제적 이슈를 다뤘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전세계에서 온 수많은 NGO는 자신들만의 노하우와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유엔 NGO 컨퍼런스와 함께한 다양한 한동인들

한동대는 2박 3일간 이번 컨퍼런스 일정에서 주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했다. 4개의 대규모 라운드테이블과 48개의 소규모 워크숍이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유네스코-유니트윈 사업단과 한국 유엔아카데미임팩트 어스파이어, 한동대학교는 부스 전시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31일에는 한동대 유니트윈 사업단의 ‘개발도상국 역량개발을 위한 유네스코-유니트윈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안진원 경영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워크숍이, 6월 1일에는 ‘지속가능 개발목표에 대한 청년들의 역할’을 주제로 한 유엔 어스파이어 사무국 소속 이예은(법, 12) 학생의 워크숍 발표가 이어졌다. 이예은 학생은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한동대 어스파이어가 컨퍼런스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동대 동문회를 연상케 하듯, 다양한 NGO와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동문들이 참여했다. 개발도상국의 기업가를 돕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더브릿지(The Bridge)'의 대표인 황진솔(경영경제, 00) 동문은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섬길지를 생각하는 우리 학교가 이번 컨퍼런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는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엔과 시민 사회를 이어주는 단체인 '유엔협회세계연맹(WUFNA)'에서 협력 담당관을 맡고 있는 임지성(전산전자, 00) 동문은 "한동대가 유엔의 주요 컨퍼런스 중 하나인 이번 NGO 컨퍼런스를 주최한 자체만으로도 이번 행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최의 의의를 강조했다.

재학생들도 3일동안 진행된 행사장 곳곳에서 부스 운영과 자원봉사에서 행사 스태프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섬겼다. 행사장 1층에 마련된 한동대학교 홍보 부스에서 유엔 어스와 이어와 NGO 소속 학생들은 부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열린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한동대 통변역대학원 학생 21명은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한 동시 및 순차 통역을 제공했으며, 한동대 창의융합교육원 최창범 교수 ICT 팀은 컨퍼런스 대회 일정과 관광 안내 등을 위한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했다. 한동 미디어팀과 한동 아카이브 소속의 20여명의 학생들은 컨퍼런스 일일 영상 제작과 사진 및 인터뷰 취재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번 유엔 NGO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위원인 한동대 원재천 국제처장은 "다양한 모습으로 컨퍼런스를 섬기는

우리 대학 학생들의 노력에 많은 외부 인사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단순히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를 위해 진심으로 섬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의 중요성을 내포한 '경주 선언문' 채택

2박 3일간의 일정의 막을 내리는 폐회식에서는 '세계시민교육-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에 대한 논의 결과를 담은 '경주 선언문'이 채택됐다. '경주 선언문'은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해 세계 젊은이들과 사회 소외계층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6월 23일 뉴욕 유엔본부 회의에서 확정되었다. 폐회식에는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개최된 컨퍼런스 인만큼 전 세계 다양한 청년, 원주민 및 소수민족, 장애인 등을 대표하는 연사들이 나와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 글로벌 시민이 될 것을 약속했다. 폐회사에는 미디어팀이 제작한 2박 3일간의 스케치 영상, 경주소년소녀합창단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졌다.

장순홍 총장은 "한동대는 영문명에도 드러나 있듯이, 비록 로컬에 위치했으나 그 어느 교육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글로벌적 소양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 학교 측과 졸업생, 재학생들 모두 한동대가 지향하는 글로벌 시민의식 소양을 전 세계에 보여줬던 크나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경주에서 만난 한동인

유엔 NGO 컨퍼런스에 참여한 한동인들과의 인터뷰



서덕수 동문 - NIBC SYPM 프로젝트 디렉터.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95학번

분명 유엔 NGO 컨퍼런스인데, 한동대학교 축제인 줄 알았습니다. 곳곳에 반가운 교수님들과 후배, 동문들, 그리고 그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 행사를 섬긴 후배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학교를 떠난 지 15년이 되어가지만, 저는 이 컨퍼런스에서 아직도 '배워서 남 주자'를 실천하는 한동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 삶의 또 다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임지성 동문 - 유엔협회세계연맹(WUFNA) 협력담당관. 전산전자공학부 00학번

한동대학교는 정말 오래 전부터 UN과 세계시민교육에 연관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러한 글로벌한 의제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이 되어 전세계의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는 한동의 따뜻한 가치관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후배들과 학교의 리더십이 보여줄 한동대의 가치가 기대됩니다.



황진술 동문 - 사회적 기업 'The Bridge' 대표. 경영경제학부 00학번

학창시절 국제관에서 생활하고,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섬기며 정말 자연스럽게 한동대 안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동대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지 고민하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한동대가 앞으로도 전세계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어떻게 함께 협력하며 살아나갈지 고민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욱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이은혜 학생 - UNAI ASPIRE, 법학부 13학번



UNAI ASPIRE 는 한국, 일본, 멕시코에 걸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세계시민의식을 확산하는 단체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UNAI ASPIRE의 일원으로서 청년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SDGs Generation'으로 불리는 우리 청년들이 세계시민교육을 받는 대상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교육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컨퍼런스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낼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심하영 학생 -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13학번



저는 NGO 부스에서 특별히 북한학생 코스프레를 하며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북한과 남한을 알리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교육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직접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굳이 대단한 사람이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더 넓은 곳을 향해 꿈꾸도록 돕고 싶습니다

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 겸임교수,
네오 플라이 차이나 신동원 대표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오 플라이 차이나에서 일하고 있는 신동원이라고 합니다. 네오 플라이 차이나 이전에는 KT, Daum Communication, LG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 사업 초기에 힘들었던 때, 시행착오를 겪었던 때가 생각이 나서 청년 창업자 분들을 돕고 싶어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게 됐고요. 한동대학교와 인연을 맺게 돼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겸임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Q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오 플라이 차이나는 코스닥에 상장한 게임회사인 네오위즈에 그 본사를 두고 판교에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벤처 팀들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 판교에 있는 네오 플라이 차이나에서 어드바이스와 컨설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준비가 되고 로컬 팀이 셋업이 되면 중국계로 연결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찾기도 하죠. 제 역할은 다리입니다. 초기에 사업을 기획하고 자리 잡는 것을 돕는 거죠.

Q RPM을 통해 상해로 가는 학생들은 어떤 기회를 갖게 되나요?

*RPM(Revolutions Per Minute : 주어진 시간 동안 혁명을 일으켜라) 한동대학교 스타트업 경진대회

학생들이 상하이로 나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세계를 리드하는 시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큰 시장을 경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거든요. 선정된 학생들이 이런 큰 세상을 보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실제로 전개를 해 보면서 엄청난 자산이 쌓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자산이 쌓이면서 다른 아이템으로 창업할 수도 있고,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꿈이 커진다고 봐요. 한 마디로 표현하면 꿈이 커지고 눈이 뜨인다는 거죠.



Q 다섯 팀을 뽑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심사위원 7분의 심사기준은 각각 다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의 각자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연히 비즈니스 아이템인데, 아이템의 실현가능성과 시장성을 중요하게 보게 돼요. 어떤 아이템은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시장이 좁은 경우, 혹은 시장에 이미 아이템이 존재하거나 시장이 너무 작은 경우, 우선적으로는 이러한 시장성이 중요하죠. 그 다음 보는 것은 팀이에요. 저는 주로 그렇게 세 개를 보게 돼요. 더 본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Q 한동대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2008년에 연변과기대와 먼저 인연을 맺고 겸임 교수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 연변과기대에서 한동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상해에서 한동대 졸업생들을 보면서 '정말 교육 잘 받은 학생들이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죠. 작년 장 총장님께서 직접 상해로 오셨을 때, 총장님의 인품과 의지를 보고 감동도 받았고 바로 즉석에서 제후도 맺었습니다. 나중에는 겸임 교수 제의도 받게 됐죠. 그래서 이걸 제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연결해주신 인연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Q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동대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대학의 학생들 보다 느끼는 바가 많아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도적인 대학 학생들을 만나지만, 저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모두 비슷하다고 볼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지식이나 똑똑함 만이 아닌데, 한동대는 충분히 똑똑하면서도 인성이 좋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교정을 걸어가는데 인사를 한다거나 서로 배려를 하는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또한 학생들이 사회에서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고, 이 학교를 많이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장기적으로는 일관되게 청년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돕는다는 것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어떤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돕고자 하는 축에는 창업자를 돕는 인큐베이팅과 글로벌 진출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창업하고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가능한 넓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돕고 싶은 것이고요. 그게 제 역할이라 생각해요. 또 한동대가 포항이라는 지역적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특색으로 승화시키고 싶어요. 포항에서 글로벌을 지향하는 거죠. 따라서 학생들이 상하이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웃음)



세상은 넓고, 장학금은 많다. 대한민국 20대, 공짜로 대학 다녀라!

<몰라서 못 받는 '대학 장학금' 당당하게 받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 학생지원팀 김충만 교직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3학년도부터 학생지원팀에서 장학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충만이라고 합니다. 한동대학교 07학번 언론정보문화학부를 졸업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것이 많아서 제가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를 생각했었고, 한동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Q <몰라서 못 받는 '대학 장학금' 당당하게 받는 1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어떻게 출판하시게 되었나요?

대학에 입학해서 공사장 막노동부터 시작해 여러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장학금을 받는 것이 더 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장학금의 맛을 알게 되어 졸업할 때까지 한 학기도 놓치지 않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장학금을 받다가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을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장학금의 종류가 많은데, 학생들이 잘 알고 있을까'. '학생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장학금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장학금 정보가 집약된 곳이나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책을 출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장학금 업무를 하다 보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계속 받아요. 어떻게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나름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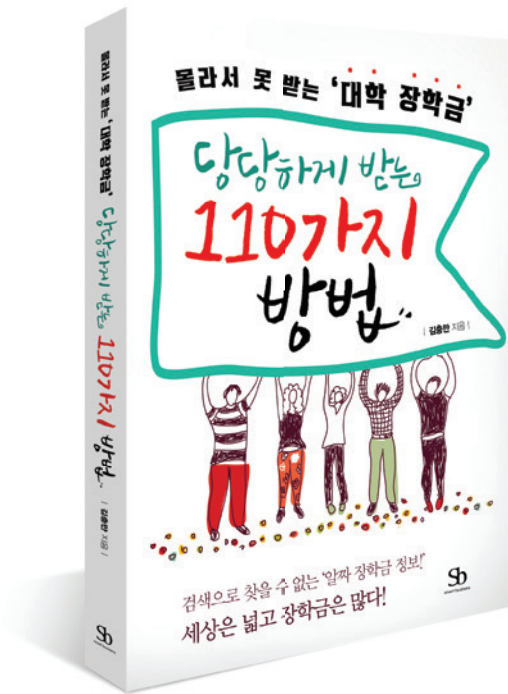
의 방법을 터득해서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어요.

Q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알면 좋은 팁이 있을까요?

일단 부지런해야 할 것 같아요. 장학금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 '내가 될까', '나보다 더 스펙이 좋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공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일단 지원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장학업무를 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보람이기 보다는 저는 연결자의 역할 가운데서 중간 통로로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학생 선발 할때 자격이 미달되어 안타깝게 선발에서 제외되는 학생이나 갑자기 가격이 곤란해진 학생이 장학금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찰나에 이런 조건의 학생에게 주면 좋겠다는 기부자가 나타나는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필요로 하는 금액과 기탁하시는 금액이 신기하게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땐 장학금이 주인을 찾아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들에게 연락해 장학금 소식을 알려줄 때 저도 함께 기쁨을 느낍니다. 통로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장학금



계속 두드려라, 반드시 받는다!

장학담당자를 귀찮게 하라!

감사편지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라!

이 이렇게 제대로 흘러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게 저에게는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도하고, 구하고, 은혜로 나타난 일 일텐데 그 과정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것이니까요.

Q 요즘 장학금을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주어야 할지, 성적이 좋은 친구들에게 주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쪽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성적우수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되는 장학금이고 가정형편이 조금 여유있는 학생들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성적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성적장학금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등록금도 비싸고, 방값, 식비, 책값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요. 통계를 보니까 대학을 다니는데 8천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등록금을 못 내서 휴학하는 학생들을 실제로 업무 하면서 많이 만나요. 그런 학생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많이 필

요하겠구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가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Q 마지막으로 졸업생으로서, 교직원으로서, 책의 저자로서 한동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은?

책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기회는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아예 기회와 결과의 차이까지 언급하는 사회에서 좌절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기부 되고 있는 장학금들이 정말 많아요. 장학금을 주고 싶어서 후원을 하는데 받는 쪽에서는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라는 걸 가장 강조하고 싶었어요. 좌절하긴 아직 이르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H)

‘하하하 호호호’ 하민호 교수의 영화 이야기 목회자를 꿈꾸던 학생, 영화감독이 되다

한동대학교 학부들의 슬로건은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나침반이자 목표이다. 여기 졸업생이자,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의 강사로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꾼다는 학부의 슬로건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이가 있다. 항상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주고 싶다는 언론정보문화학부 97학번이자 현재 한동대에서 영화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하민호 졸업생을 만났다.

Q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맑은 시네마라는 회사에서 감독 겸 프로듀서를 맡고 있습니다. 맑은 시네마라는 이름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의 ‘Mere’라는 단어를 모티브로 정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히 작품 활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짓게 됐고, 그 시네마의 첫 영화가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천화’라는 작품이죠.

Q 지금 만들고 계시는 영화에 대한 소개와 제작 동기는 무엇인가요?

지금 제작하고 있는 영화는 ‘천화’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이 일화 씨와 양동근 씨, 8090년대 우리나라 패션계를 주름잡던 하영수 패션디자이너가 주연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천화’는 치매 노인인에 대해 다루는 영화로 치매로 인해 인간 내면의 감정의 분출을 주체할 수 없어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는 노인과 이런 노인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는 간병인,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려는 십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처음에 다른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제주도에 내려가서 다른 감독님과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작업 중 쉬는 시간에 감독님이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며 저에게 아이디어를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영화를 제작할 테니 영화를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하게 됐죠. 현재는 많은 분들과 함께 편집 및 음향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Q 영화계에 뛰어들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했어요. 신학대학을 바로 가지 않고 한동대에 온 것도 어른들께서 일반 대학을 다녀서 시야를 넓히라고 하셔서 온 것이었죠. 원래는 영문학이 목회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반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목사 과정을 마친 후,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박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두필 교수님의 광고론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광고가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 저 잠시만 광고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광고를 공부하면서 강두필 교수님의 TA로 영화 워크숍을 듣게 되었고 그 때 제가 찍었던 영화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농아인에 대한 영화였는데, 배우가 모두 농아인이어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촬영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다 보니 앞으로 영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 21세기에는 영상의 영향력이 엄청나고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Q 한동대학교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큰 특징은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

자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이러한 목표에 비쳤을 때 정직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동의 가장 크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를 들자면 ‘가족 같은 분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과의 관계가 가족 같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의 해야 할 것은 교수님께서 너무 학생들을 가족 같이 대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교수님들을 자주 찾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면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환경과 분위기를 배려하면 좋겠죠.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멘토 같은 할아버지 한 분께서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그분은 항상 ‘조급하지 말라’는 것과 ‘학생의 신분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시곤 했어요. 젊었을 때 가장 큰 적은 조급한 것이고, 조급함 때문에 본질을 탐구하는 학생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동대에 다니면서 후배들이 스펙과 타인과의 비교로 조급해하지 말고 학생의 신분으로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가 되면 좋겠어요. (H)

한동을 이끄는 힘 “기도”

한동인의 ‘첫시간’부터 ‘끝시간’까지 함께 하다

한동인은 한동대학교가 “HANDONG GOD’S UNIVERSITY”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동 광야로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기도를 통해 날마다 배우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세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왕이 내린 진미를 단호히 거절하며 세상이 주는 시련을 기도로 이겨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동인이 되길 기도한다.

5:30 a.m. 한동의 첫시간 1부 “오늘도 새벽에 벌떡”



새벽 5시반, 한동의 이른 아침을 깨우는 알람소리가 울린다. 어제도 과제를 하며 밤을 지새웠지만 오늘 아침도 눈이 번쩍 떠진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한동인들의 발걸음이 효암채플 별관 3층을 향해 분주해진다. 새벽기도는 “새벽에, 벌떡!”이라는 구호로 시작된다. 새벽기도를 섬기는 이들은 이른 아침에도 벌떡 일어난다고 하여 ‘벌떡이’라고 부른다. 새벽기도에 참여한 한동인들은 ‘새벽쪽지’에 기도제목을 작성해 함께 중보기도를 한다.

벌떡이로 섬기고 있는 이신영(콘텐츠융합디자인, 12학번) 학생은 “새벽기도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낍니다”라고 고백했다.

7:00 a.m. 한동의 첫시간 2부 “고요한 말씀묵상의 시간”



한동인의 첫시간 2부는 조금 특별한 시간이다. 한동인의 첫시간은 기도 소리로 가득 찼다면, 2부는 고요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말씀 봉독자가 앞으로 나와 본문 말씀의 줄거리에 대해 설명하고, 말씀을 봉독해가면 한동인들은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들으며 묵상한다.

첫시간 2부를 섬기는 강인애(국제어문, 09학번) 학생은 “이전에는 성경을 좋아하는 구절 중심으로 읽었지만, 첫시간 2부를 섬기며 모든 성경 말씀이 한 구절도 빠짐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1:00 p.m. 중심기도회 “한동과 세계를 향한 기도”



한동대학교 캠퍼스 중심에는 95학번 선배들이 비전캡슐을 묻고, 지금은 07학번 선배들의 비전캡슐이 묻혀 있는 비전광장이 있다. 그곳에 오후 1시가 되면 동그랗게 모여 기도하는 한동인들이 있다. 이들은 한동에 있는 선교단체들과 함께 한동과 세계를 향한 기도를 이어가는 ‘중심기도회’다. 중심기도회를 섬기는 장은호(기계제어, 15학번) 학생은 “매일 다른 기도제목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며, 선배님들이 기도를 쌓던 자리에서 그 유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

목요일 5:30 p.m.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주님을 사랑하듯...”



한동대학교의 12개 학부들은 모두 각각 기도회가 있다.

그중 “주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자”라고 외치는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학부 기도회의 문을 두드렸다. 책상마다 켜져 있는 은은한 촛불은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님 다섯분도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다.

기도회를 이끌고 있던 김주표(상담심리사회복지, 14학번) 학생은 “일주일 동안 살아온 믿음의 여정에 따라 기도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수요일 7:00 p.m. 기쁨의 세대 “16학번 기도회”



한동의 각 학번들은 함께 모여 학번기도회를 꾸리기도 한다.

한동에 각기 다른 비전을 품고 입학한 16학번 새내기들은 매주 1시간씩 모여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16학번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박상하(글로벌리더십, 16학번) 학생은 “16학번인 동시에 GLS학부 학우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리를 섬김에 너무 감사했습니다”라며 “학우들과 매주 학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라고 말했다.

9:30 p.m. 한동인의 끝시간 “찬양이 넘치는 강물예배”



한동인의 끝시간, 금요일 저녁에는 ‘강물예배’가 있다.

기존의 예배와는 다르게 강물예배에서는 한 시간 반 동안 찬양을 부른다.

각자의 목소리가 담긴 찬양 소리, 각자의 간절함이 담긴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 가득 울려 퍼진다.

강물예배에 참석한 권혁기(콘텐츠융합디자인, 11학번) 학생은 “평일이 끝나는 금요일이 되면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려 강물예배를 갈 때마다 항상 진정한 쉼은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한동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금요일 밤까지 삶의 매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깨우고 한동을 깨우고 세상을 깨울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외치는 한동의 기도소리가 담장을 넘어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한다. (H)



배움과 삶의 일치를 지향하는 Torrey College

토레이 칼리지의 유쾌함이 넘치는 문화의 밤

2011년 1학기, 일반 생활관이었던 '비전관'이 한동대의 첫 번째 RC(Residential College)가 되어 '토레이 칼리지'(Torrey College)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토레이 칼리지는 배움과 삶의 일치, 하나님과 나, 타인과 나의 '관계', 함께 배우며 살아가는 '공동체', 자발적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자치'를 핵심가치로 삼아, 믿음·삶·배움의 일치를 지향하는 공동체다.

'토레이'라는 이름은 한국 개신교에 큰 기여를 하신 대천덕 신부님의 영문 이름, 'Ruben A. Torrey III'에서 유래했다. 토레이 칼리지는 교수님과 함께하는 '토레이 브런치', 교수님의 특별한 강의가 있는 '라운지톡', 토레이 칼리지만의 축제 '문화의 밤' 등의 행사를 통해 그 독자적인 가치를 실현해가고 있다.

2012년 처음 시도된 토레이 칼리지만의 작은 음악회는 '문화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문화의 밤은 토레이 칼리지에 소속된 팀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로 제4회 문화의 밤은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무대로 토레이인들의 일상 속 유쾌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도형기 교수님팀 'DNA 11기'의 연극, '인사이드 아웃'

도형기 교수님팀은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의 컨셉으로 한동대에 갓 입학한 16학년 새내기들이 겪는 심경변화를 연극으로 선보였다. 새내기인 '수빈'의 마음 속 까칠이, 슬픔이, 기쁨이, 버럭이, 소심이가 팀 활동에 불성실한 친구에게 보이는 반응을 연출해 토레이인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수빈' 역을 맡았던 정수빈(GLS, 16) 학생은 "진심이 담긴 내용이라 그런지 연기할수록 새내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정숙희 교수님팀 '숙희인푸드'의 연극, '전공인사이드'

정숙희 교수님팀은 영화 '뷰티인사이드'에서 영감을 얻어 자고 일어나면 전공이 바뀌는 '우진'의 이야기를 보여줬다. 한동대의 1학년은 무전공으로 다양한 전공 체험의 기회를 가지듯, 우진도 매일 다른 전공을 전전하며 어떤 전공이 가장 잘 맞는지 고민한다. 특히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에서는 옆 사람과 토론을 하고,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에서는 밤새 과제를 만들며, 기계제어공학부에서는 수식들 간의 복잡한 논리를 배우는 등 센스 있는 각 학부의 묘사로 토레이인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전공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비전을 이루길 원하는지 먼저 고민해보자는 친구의 조언을 통해 우진이 용기를 얻는 것으로 끝이 난다.

박영춘 교수님팀 꽃보다영춘의 연극 '토레이의 핵심 가치와 밑바탕이 삶과 만났을 때' 박영춘 교수님팀은 주인공 '봉봉'이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어려움과 학업에 대한 고민을 '토레이친구들'의 도움으로 해결해가는 내용을 연극 무대에 올렸다. 마지막에는 팀원 전체가 무대 위로 올라와 찬양 '구원열차'에 맞춰 율동을 선보였다.

대상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를 주제로 춤과 노래를 선보인 김주일 교수님팀 '소리주일러'가 수상했다. 그 외에도 어쿠스틱 공연, 뮤직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무대들로 문화의 밤이 풍성하게 채워졌다. 문화의 밤 MC를 맡은 장현은(언론정보, 14) 학생은 "학생들이 한번쯤은 겪었을 고민에 대해, 토레이의 가치를 해결점으로 제시하면서 토레이인들의 공감을 잘 이끌어 낸 듯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제4회 문화의 밤의 총디렉터를 맡은 박주찬(기계제어, 12) 학생은 "토레이 가족분들과 함께 한 축제를 통해 하나됨의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화의 밤을 주최한 토레이 칼리지들 비롯한 한동의 다양한 RC들이 앞으로도 각 RC의 특징이 담긴 독자적인 행사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본다. (한)

거룩함이 그리스도인 존재의 본질이자 세상을 이기는 힘

학생 중심 문화 운동, 제41회 순결서약식 열려



우리 대학에서는 매년 학생 중심의 문화 운동인 순결서약식이 열린다. 개교 초기에 시작되어 올해 제41회를 맞은 순결서약식은 지난 5월 21일 한동대학교 올네이션스홀 오디토리엄에서 진행되었다. 올해 서약자는 총 85명이다.

순결서약식은 개인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순결할 것임을 선포하는 학생 중심의 자발적 문화운동이다. 순결서약식은 육체적 순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몸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말, 행동, 생각, 그리고 마음 모두 투명하고 순결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의미한다. 주최측인 His Bride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자신 앞에서 자발적으로 순결하게 살겠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참다운 신앙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순결 서약식의 개인적인 의미는 ‘참다운 신앙고백’이며 사회적인 의미는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서약은 스스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라기보다 죄 된 삶을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번 순결서약식은 His Bride와 김완진 담담목사, 교목실, 학생지원팀, 총학생회를 통해 총 5개의 강의와 서약식으로 이루어졌다. 4월 24일 사전 강의를 시작으로 4월 25일 박영춘 교수 부부의 ‘에텐의 가정’, 5월 2일 박수웅 장로의 ‘육체적 순결’, 5월 9일 김완진 목사의 ‘영적 순결’이 있었다. 5월 17에 있던 마지막 강의에서는 ‘사회적 순결’을 주제로 영화 <Courageous> 상영이 있었다.

서약자들은 총 5개의 강의를 듣고 5월 21일 순결서약식에 참석했다. 찬양으로 개회한 순결서약식은 개회 선언 후 서약자의 기도와 간증을 들었다. 이후 최정훈 목사가 거룩함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최정훈 목사는 서약자들을 축하하며 설교 말씀을 열었다. 그는 로마서 12장을 설명하면서 “순결함보다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함 속에 순결, 순수함, 청결, 정직, 진실 등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거룩함이 그리스도인 존재의 본질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설교를 이어갔다.

설교 이후 서약자 일동은 일어나 여러 증인 앞에서 순결 서약문을 읽었다. 증인들 역시 증인 서약문을 함께 읽으며 서약자들을 지지했다. 이후, 서약자와 동행한 대부모들은 오디토리움 강단 위에 줄지어 서약자에게 증서와 반지를 수여했다. 증서와 반지수여식이 끝난 후엔 잠시 기도 시간을 갖고, 다 같이 일어서 축복송을 부르며 서로를 축복했다.

순결서약식에 참여한 임하영(언론정보, 12) 학생은 “순결서약식이 저에게 큰 결단이라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 육적 순결을 약속한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고자 서약한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길 기도하며 축복한다. (H)



Focus 1

나눔과 정직이 만든 따뜻한 한 끼의 위로, 한동만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재학생들을 위한 식사지원 후원프로그램 신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출16:4)

만나는 성경에서 광야 속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이다.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한 달 뒤인 둘째 달 십오일에 만나가 내렸다.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시기 시작하신 것처럼, 한동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후원자와 한동 공동체가 아나코드로 함께 채워가는 사랑의 위로,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한동만나'가 지난 5월 23일에 시작 되었다.

한동만나의 시작

한동만나 프로젝트는 한 학부모님의 도움으로 시작되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통해 식사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더 많은 한동의 청년들이 식사 걱정 없이 건강한 학창시절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돕고 싶다"며 후원을 해 주셨다. 이를 시작으로 재학생들을 돕기 위해 신세계 푸드와 총학생회, 후배들을 돕기 위해 총동문회가 동참하여 풍성한 밥상이 준비되었다.

한동만나 메뉴는 기본적인 영양공급을 위해 "코리안테이블 정식"으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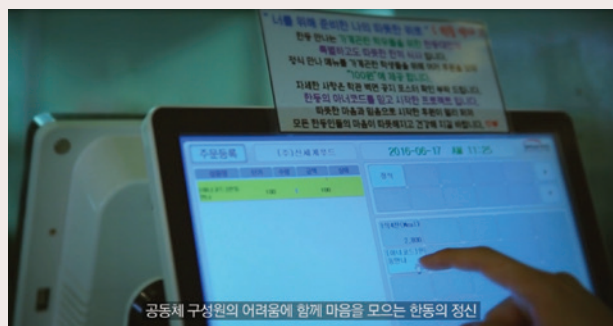
최초 후원금으로 준비된 1,250끼니로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교내 학생식당에서 프로젝트를 진행되었다. 진행기간 동안 추가로 모인 후원금을 포함하여 총 1,889끼니의 한동만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한동만나의 필요성

실제로 우리 대학의 학생들의 식사 현황을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다. 우리 학교에 식사가 어려울만큼 형편이 어려워 한 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74.4%가 자주 듣거나 한 두번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본인이 가정형편 때문에 평소에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72%이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못한 적이 자주 있었다고 답하였고, 28.1%의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한 두번 식사를 못한 적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한동만나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학생을 위한 후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의 99.1%의 재학생들이 기대를 갖고 공감해 주고 있다.

설문주관 대외협력팀 | 설문대상 재학생 | 설문조사 방법 온라인 구글 설문지
설문기간 5.23~6.17 | 설문응답률 2016년 1학기 재학생 총3,990명 중 640명인 16% 응답

한동만나 이용 방법



- 1) 학생식당 코리안테이블 메뉴중 "한동만나"메뉴 클릭
- 2) 본인의 학생카드 결제(푸드포인트 or 체크카드)
- 3) 만나메뉴 이용학생 100원 결제
- 4) 식사 쿠폰을 쿠폰함에 넣고 식사

너를 위해 준비한 나의 따뜻한 위로

한동민나를 이용한 학생들의 이야기

끼니를 거를 걱정을 하지 않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었는데 한동민나에 대해서 알게 되서 끼니를 여러 번 해결했습니다. 매우 감사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가정 자녀입니다. 학관 식사가 비싸서 매점에서 김밥을 사서 부족하게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는데, 한동민나가 생긴 후 부담없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카드에 8천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 학식 2800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어제 팔던 샐레떡 두 개에 1200원짜리로 접시를 때웠습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해서 사용했고 100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한동민나를 만들어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한동민나를 먹을 수 있어서 끼니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번 주에 장학금이 들어와서 한동민나에 약속하게나마 후원할 생각이예요.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기도했는데 생겨서 감사합니다.

용돈은 떨어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죄송해서 굶거나 삼각김밥, 주먹밥으로만 식사를 하던 중 한동민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적은 돈으로 식사를 한다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동민나 덕분에 오늘은 제대로 된 한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민나 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끼니를 챙기기에 형편이 어려웠는데, 누군가의 후원과 도움으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한동의 귀한 섬김과 손길인 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딱 2번 사용했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집안형편이 안 좋은 저에게 큰 도움이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용돈을 받지 못하고 이번 학기를 보냈습니다. 민나는 정말 저에게 민나 같은 존재였어요.

1학년 때, 학기말이 될 때쯤 집에도 돈이 없고, 나도 학자금 대출했던 생활비를 다 쓰는 바람에 끼니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이야기도 못하고, 새내기이다보니 팀오빠들에게 밥 사달라고 애교부렸던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분명히 이번 학기에도 나와 같은 학우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끼니를 못 챙겨 먹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한동민나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이 끼니를 걱정없이 때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지만, 저보다 더 힘든 친구들을 위해 한동민나를 양보하려 합니다.

사랑 한 손가락, 위로 한 젓가락

따뜻한 한끼 한동만나

학생들 스스로 정직하게 생활하자는 “아너코드” 문화

한동만나의 첫 마중물이 되어 준 후원금은 4월 19일 입금이 되었고, 실제 한동만나 프로젝트는 5월 23일부터 실시하였다. 후원금을 받은 후 한달 만에 실제 프로젝트로 연결이 되어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한동아너코드(명예제도)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발(혹은 신청 받아서) 할 경우, 한정된 후원금으로는 소수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다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한동아너코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동에는 이미 아너코드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무감독양심시험은 물론, 현재 학생식당 신세계 푸드의 베이커리매장도 아너코드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 개인이 고른 베이커리 메뉴를 본인이 직접 결제하고 있으며, 매출 대비 손실률이 0.3%에 불과하여, 99.7%가 잘 지켜지고 있다. (2016년 3월 기준액)

한동만나에 대한 학생들의 아너코드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동만나가 아너코드로 잘 지켜질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93.5%의 학생들이 잘 지켜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이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너코드를 잘 지켰다는 질문에 한동만나를 이용한 119명 중 94% (112명) 잘 지켰다고 답하였으며, 6%(7명)가 아너코드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답하여 대부분 학생들의 아너코드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동만나의 계기와 의미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최소한 밥을 굶는 우리학생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한동대에 근무한 4년동안 학교가 학생을 정말 아버지처럼 돌보고 가르친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박소윤 점장 (신세계 푸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많이 들려오고 있는 요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백이삭 (총학생회장)

공동체 구성원의 어려움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한동의 정신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손을 뻗으면 도와줄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유강 (한동대 총동문회회장)

급식비 아끼고자 라면을 좋아하는 척하며 먹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후한 금액을 바로 내놓진 못하지만, 십시일반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계속 이어져 한동의 또 하나의 멋진 전통으로 남길 기대합니다. 동문후원참여자 이○○ (01학번)

서로를 향한 배려가 더욱 깊어질 한동만나

한동만나의 소식을 들은 후원자들의 추가 후원과 동문의 후원참여가 이어지고 있어서 2016년도 2학기에도 한동만나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한 끼 지원이 꼭 필요한 친구들에게 지원이 된다면, 75%의 학생들이 소액으로라도 후원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학기에는 재학생들의 학생식당에서 한동만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한동만나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최대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이번 2학기에는 서로를 향해 펼치게 될 더욱 풍성한 ‘나눔’의 손길과 더 깊어질 ‘정직’의 정신이 만나 더욱 따뜻한 질 한동만나가 기대된다.

한동만나는 1만원을 후원하면, 한동만나를 약 4끼정도 후원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한동의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끼, 한동만나를 후원해 줄 동문과 학부모, 후원자를 기다린다. 그래서 언젠가 한동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끼니를 거르는 학생이 더 이상은 없다고 선포할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ft)

한동만나

한동만나 소개영상 및 후원 계좌 안내
http://sarang.handong.edu/manna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한동대학교

후원 관련 문의
대외협력팀 054-260-1065 sarang@handong.edu



한동만나 캠페인

처음으로 세워진 한동대 여호수아 장학생



우리 대학은 2016학년도 1학기에 여호수아 장학제도를 시행하여 첫 번째 여호수아 장학생을 선발했다. 지난 4월 6일 여호수아 장학생 55명에게 '여호수아 장학금'을 수여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실시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장순홍 총장과 장학금을 받은 한동대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재학생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여호수아 장학금' 모금을 시작해 지금까지 93명의 후원자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2016년 6월 기준) 후원 및 약정 받았다. 첫 번째로 장학금 지급이 시행된 2016학년도 1학기에는 55명의 학생들에게 9,8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중 등록금(300만원) 지원을 받는 학생은 26명이고 생활비(60만원)를 지원받는 학생은 29명이다. 휴학하지 않는 학생은 다음 학기에도 같은 금액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1인당 600만원 또는 120만원을 받게 된다.

장순홍 총장은 "취임 초기부터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고민한 결과, 여호수아 장학금을 만들게 되었다." 라고 밝혔다. "선교사나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글로벌한 감각과 언어, 예술적인 달란트 등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강점들이 있다"며 "한동과 한국교회와 열방을 이끌어 세상을 변화시킬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같은 리더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임이사(글로벌리더십학부, 16학번)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여호수아 장학금을 지원받는 선교사, 목회자 자녀들은 후원자와 1대 1로 매칭된다. 후원받는 학생들은 감사편지와 기도제목을 한 학기에 한 차례 후원자에게 보내며, 희망자에 한해 연간 한 번 전체 만남행사에 참석하는 등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여호수아! 한 교회 한명 세우기 캠페인 시작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단기적, 일회성 후원이 아닌 장기적, 정기성 후원이 중요하고 또 그 일들이 이들에게 필요하다. 선교사 자녀를 돕고 목회자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선교사의 현지 사역을 돕고 목회자의 사역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우리 대학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와 진행하는 '여호수아 한 교회 한 명 세우기 캠페인'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한 교회와 한 명의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를 매칭하여 교회와 성도가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여호수아를 세우고자 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었다. 한동의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는 미래의 세계선교 및 목회, 그리고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될 것이다. 지난 날 광야의 시간을 거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듯이, 지금 공부하며 훈련받고 있는 한동의 자녀들을 함께 응원하고 중보하는 따뜻한 손길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한국교회와 학부모, 동문,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if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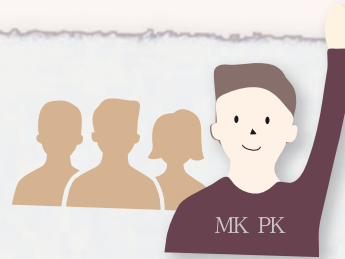
여호수아 장학금

여호수아 생활장학금 1년 120만원(일시, 월정기 10만원씩 후원가능)
여호수아 등록장학금 1년 600만원(일시, 월정기 50만원씩 후원가능)
여호수아 일반장학금 1만원 이상(일시, 월정기 후원가능)

여호수아 장학금 소개 영상 및 안내
<http://sarang.handong.edu/joshua>
후원관련 문의
한동대 대외협력팀 054-260-1065
sarang@handong.edu



여호수아 장학생의 감사편지



16학번 여호수아 장학생(선교사 자녀)

지난 선교사 자녀 모임에 갔을 때 여호수아 장학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돈이 없고, 불쌍해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이 장학금은 저의 한평생의 비전과 가능성을 보고 주는 것이다. 둘째, 이 장학금은 해외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저희들의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도 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이 장학금이 더욱더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비전은 남미 국가인 000과 거기에서 살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저의 부모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장학금을 통해 더욱더 많은 공부에 대한 의지가 생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항상 길을 열어 주셔서 은혜가 생깁니다. 한동대학교를 입학하고 좋은 사람들과 축복받은 모임을 알게 하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장학금이 더욱 더 가치 있게 만들겠습니다.

13학번 여호수아 장학생(목회자 자녀)

여호수아 장학금 혜택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발이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왜 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번 학기 시작이 되고 저에게 3만원을 생활비로 주셨습니다. 6주차 동안 3만원밖에 저에게 주시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게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부모님을 위로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없는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나의 사역을 하는 자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든 생각들과,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알려드렸더니, 엄마가 눈물나도록 감동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개척교회 사역을 하시는 부모님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도 너무나도 기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저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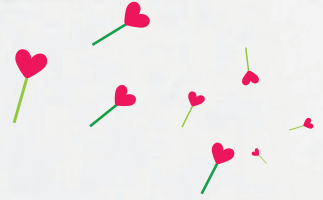
16학번 여호수아 장학생(목회자 자녀)

“하나님께서 수없이 저희를 재정으로 훈련시켜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일 가지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무화과 나뭇잎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없으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며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이러한 소식과 동시에 제가 여호수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찌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후원자님,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가난한 것이 너무 슬프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통해 돈이 아닌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남들이 돈이 없어 절망할 때에 저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돈 없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요.

저의 이런 상황, 환경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저의 필요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동원자의 답장



00양은 참으로 복이 많습니다. 이 복은 00양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세상의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학 한동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깐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질은 꼭 필요하지만 아무리 물질 많은 부모님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고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로 선택하신 주님의 크신 축복을 기대하며 힘내기를 바래요. 한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보내준 기도 제목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헌신과 순종으로 00군을 비롯한 그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혹은 믿음에는 의심이 없지요. 하지만 00군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 가장 큰 복은 그 아버지의 헌신과 순종의 삶을 이어가는 것 아닐까요? 아니,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더 깊고 높은 헌신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00군의 소원과 기도에서 저는 그러한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 꿈의 답지자를 강력하게 몰아갑니다.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높고 높은 산으로. 그 과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은 그 꿈 꾸는 자를 अनिह계 놓아두지 않는, 모질고도 집요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면 그 꿈을 스스로 놓아 버리게 만드는 곤린한 지경에까지 몰아가신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야 순결하고 고귀한 꿈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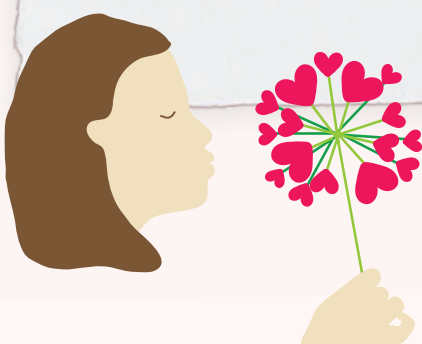
하루하루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생생하게 경험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는 때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동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순종과 헌신의 길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후배님, 저는 졸업생입니다.

저 또한 한동에서 공부하면서 주변에 MK, PK 들을 많이 봤거든요. 정량화된 수치를 넘어,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곤고한지 직접 봤었기 때문에. 제가 재학중일 때 만났던 제 친구, 후배들을 돕지 못했지만 후배님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후배님의 자기소개서, 감사편지, 기도카드 다 잘 받았고, 글을 읽으면서 한동에서 만났던 나의 하나님, 그 추억이 새록새록. 막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듯,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 후배님을 한동으로 인도해 주셨고, 정말 친밀하게 만나 주실거라 믿습니다.

한동에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래요. 저도 학교 다닐때는 한동이 광야라고 하나님 언단하시는게 넘 아프고 힘들었는데 졸업하고 보니 한동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의 영적 추억으로 가득한 고향이었더라고요. 왜 그 시간을 누리지 못했을까. 더 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누렸으면 좋았을텐데 한답니다. 한동에서의 지금을 온전히 누리고 나중에는 지금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기도합니다.



Focus 3

자유학기제, 대학 교육에 새로운 바람

전국 대학 최초로 자유학기제 도입한 한동대

한동대는 2015학년도 2학기에 전국 대학 최초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다. 자유학기제는 학기 중에 수업 대신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면 이를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학생들의 자율적 체험과 참여 위주의 활동을 통해 창의성 함양, 비전 탐색 및 진로 개발 등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현장 실습, 인턴십, 프로젝트 수행, 창업 활동, 어학연수, 해외문화 탐구, 국내외 사회봉사 등을 자유학기로 대체할 수 있다.

장순홍 총장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중요한 시대에 현장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실 사회와 학교 간의 거리를 좁히고 일자리와 수업의 연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자유학기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학사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엄격한 심의 과정을 통해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자유학기 학점인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신청서와 활동계획을 심의하고 이후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과정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학생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학점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한동대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 체험과 참여 위주의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함양하고 학습 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며 비전 탐색과 진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유학기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창의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등 자기계발에 나서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된다. 장순홍 총장은 “학생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 휴, 복학을 반복하며 졸업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학점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취업 연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2016-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생은 총 11명이다. 이들은 각각 ▲베트남 NIBC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실리콘밸리 파견 ▲프로젝트 말라위 ▲더브릿지 ▲오파테크(OHFA TECH) ▲아시아개발은행 ▲Periscope ▲TWC(The Washington Center)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현재 자유학기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에서 연수 중인 이영인 학생(전산전자, 12)은 “현재 3명이 한 팀이 되어 멘토에게 멘토링을 받으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며 “학기 수가 높는데 아직 들어야 하는 전공 학점이 꽤 남아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빨리 졸업은 하고 싶고,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학업과 병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고민하던 중 자유학기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좋은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자유학기제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작년에 실리콘밸리에 파견되어 자유학기제를 마친 이재정 학생(경영경제, 08)은 “실리콘밸리라는 글로벌 IT혁신의 메카에서 한동대학교

를 통해 만나게 된 동문들, 교수님들,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과 제 자신의 진로에 대해 냉철하게 고민하고 뜨거운 열정을 다시 지피는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라며 “끊임없이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제 앞의 다른 도전에도 한동인들과 함께 하길 고대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자유학기제는 정부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다양한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전면 의무화되었다. 이 배경에서 한동대가 작년부터 자체적으로 자유학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대학 교육에도 혁신적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대는 개교 초기부터 무전공·무학부 입학 및 자유로운 전과 제도, 복수 및 연계전공을 실시하며 학제간 융합을 강조하는 등 교육의 혁신적 모델을 제시해 왔다. 한동대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도가 대학 사회에 어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한)



Focus 4

뮤지컬 <러브트릴로지: 청춘>

분주한 대학로에 맑은 콘텐츠를 뿌리다



매일 수많은 공연이 올라가는 청춘의 보고, 대학로의 어느 골목에 위치한 JH아트홀에서 분주히 공연을 준비하는 한 팀이 있다. 바로 <러브트릴로지: 청춘>팀이다. 입구에 들어서니 한켠에 위치한 작은 테이블 위에는 각종 기념품들과 티켓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공연장의 관객석에는 등반이가 없는 길쭉한 쇼파들이 늘어져 있었다. 러브트릴로지의 테마곡들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관객들이 하나, 둘 입장한다. 티켓부스에서 나눠준 팸플렛에는 ‘고백, 이별, 그리고 재회. 서툴렀기에 답답했고, 순수하기에 가슴 아팠던 그 순간. 그리고 그 때의 우리. 기억하나요?’라는 문장으로 관객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있었다. 암전이 된 후 여섯 명의 배우가 나와 노래를 부르며 공연이 시작됐다.

<러브트릴로지: 청춘>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세 친구의 우정과 사랑을 통해 서투르지만 순수한 청춘의 순간들을 유니버스 형식으로 세심하게 그려내고 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연되는 이 공연의 연출은 2015년 프랑스 클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던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졸업생 심찬양 씨가 맡았다. “많은 관객분들이 오셔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년전에 처음 공연이 되고 5년 동안 꾸준히 공연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과연 또다른 5년을 버틸 수 있는 힘있는 콘텐츠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터뷰가 어느정도 진행된 뒤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 같이 하자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잘 안됐어요. 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저는 접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이 공연을 위해 지금 40명이 넘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아무런 조건없이 함께 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연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인 돈을 투자해서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빗장이라고 표현한 그는 공연 준비를 위해 자리를 옮겼다.

이번 공연에서 ‘덕호’역을 맡은 배우 황다솔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고백 파트의 남주인공인 덕호는 어릴적 자신의 옆을 든든히 지켜주던 자신의 첫사랑, 동네 누나에게 고백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귀여운 연하남이다. 황다솔 씨는 이전 시즌에서 이별 파트의 호태 역할을 맡은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첫 대본을 받은 역할은 호태도, 덕호도 아닌 태일이였다. “개인적으로 태일의 넘버인 ‘재회’를 너무나도 좋아했고, 또 군대에서 이별을 겪어 보기도 했기 때문에 ‘잘 준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려는 시점에 덕호 캐릭터로의 전환 제안이 있었고, 그렇게 전체 첫 리딩 후 덕호로 확정 되었습니다.”라며 후일담을 들려주었다. 그는 공연을 마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연기가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딱 하나 공연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들이 내 재산이라는 걸 항상 느낍니다. 동시에 ‘무대 위에서 재미있게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질문들이 떠올랐고, 지금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중입니다.”라며 공연팀 구성원들과 공연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본 공연은 2011년도에 극본부터 노래, 작사작곡까지 모두 한동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순수 창작 뮤지컬이다. 당시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신념으로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학생들의 힘으로 이루어내 주목을 받았다. 2012년 포항시에서 최초로 뮤지컬 장기 공연을 시도하여 소극장에서 한 달 동안 공연을 했으며, 당시 학생 작품이라는 편견을 깨고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대학로 공연은 크라우드 펀딩 포털서비스 업체인 와디즈를 통해 제작비 모금에 도전, 목표 금액의 135%를 달성하기도 했다. (H)



모교에서 받은 내리사랑을 실천합니다

한동대학교 총동문회, 후배 사랑 장학금 및 멘토링 사업 추진

총동문회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및 멘토링 사업을 추진했다.

총동문회 장학사업은 많은 동문이 오래전부터 바라고 원하던 총동문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총동문회는 이 사업을 통해 후배들이 등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꿈꾸고 성장하여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모교에서 받은 '내리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다.

장학 사업은 2015년 5월 23일 총동문회가 주최한 '한동 감사의 밤'에서 동문들이 모아준 1,000만원의 장학금을 학교에 전달하는 것을 계기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동문들은 한동대학교 총동문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 지원 서류, 심사표 등을 만들고 2016년 1월 21일부터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제1회 총동문회 장학생을

3명 선발하고 2016년 3월 16일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총동문회는 이예림(국제어문, 11), 진경민(국제어문, 12), 권지수(생명과학, 14) 등 장학생 3명에게 비전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선발된 3명의 장학생은 1년 동안 모두 1천40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총동문회 장학생은 한동대학교의 건학이념 및 목적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한동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갖는다. 총동문회는 총동문회 장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예롭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장학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장학생 선발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총동문회 장학생 선발은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성실성·공동체성·진취성에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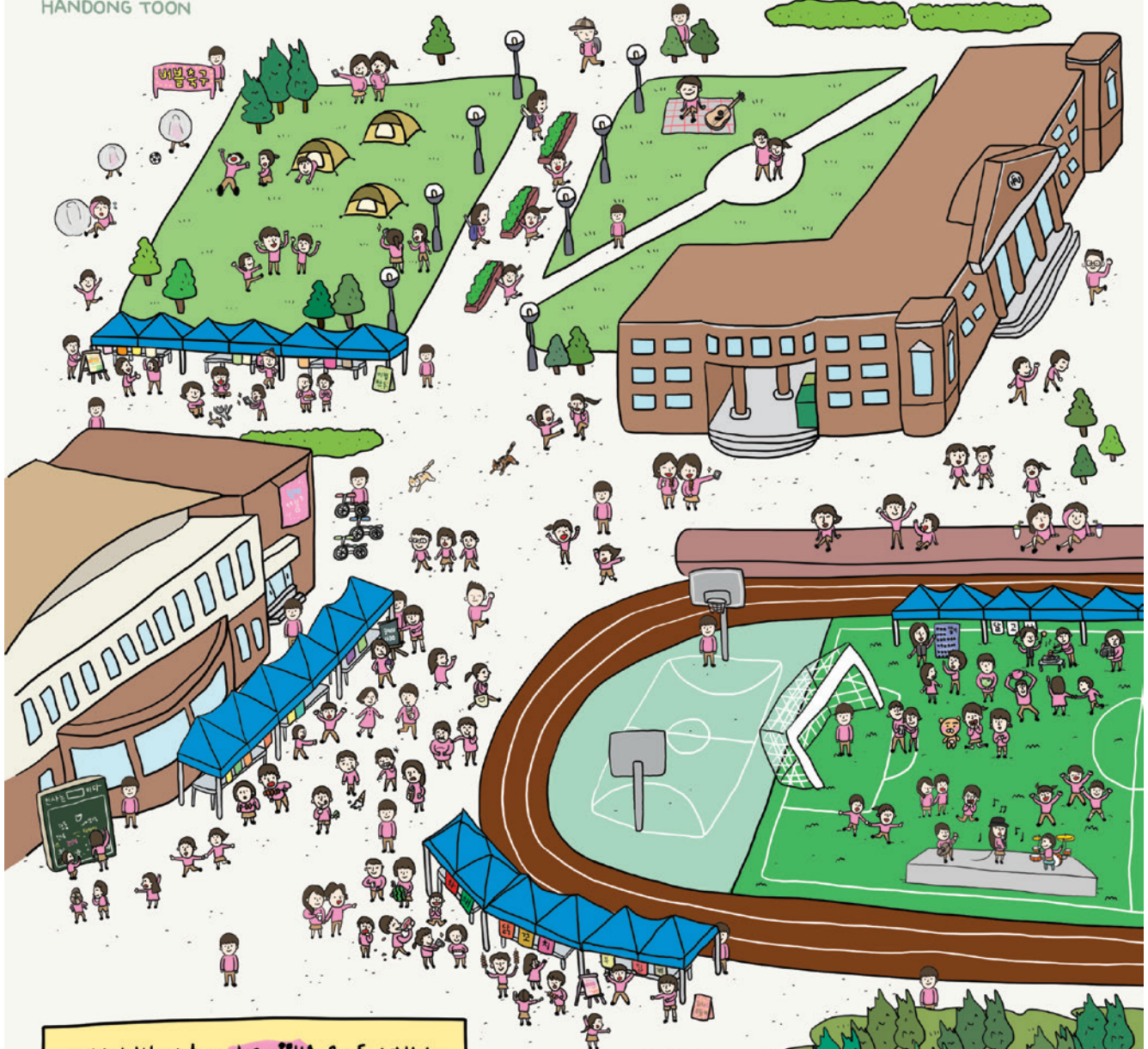


장학금 지원자는 한동대학교 학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선발연도를 기준으로 2학기(1년)를 연속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총동문회는 지원자를 선발하여 1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뿐 아니라 장학생에게 진로, 신앙 등 영역에서 모범이 되어 조언해줄 수 있는 '후배 사랑 멘토'를 연결해준다.

멘토링 사업에서는 장학생의 비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먼저 일하고 있는 선배를 선정하여 후배 사랑 멘토로 위촉하고, 멘토는 선정 후 1년간 활동하며 장학생과 교제를 하고 신앙과 진로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하게 된다. 멘토에게는 장학생과 학기당 1회 이상 식사를 하는 등 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총동문회 부회장이자 장학위원장인 이준철(국제어문, 04) 동문은 일주일 남짓의 짧은 공고 기간에도 많은 학생이 지원했던 것에 대해, 지원서에 담긴 후배들의 고백을 읽어 내려가며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장학사업에 참여한 여러 동문과 "더 많이 모아 더 많이 돕자"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는 "이번 장학사업의 예산이 한정 되어 있어, 더 많은 후배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총동문회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후배와 함께할 수 있도록, 나아가 한동대학교가 '등록금 없는 대학'이 될 때까지 장학사업을 힘써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총동문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장학 사업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총동문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문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재정 기여와 후배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힘을 예정이다. (ft)



2016년 불학기 축제 **함께 ~~한동~~** 을 즐겨봐요!
그리고 **찾아봅시다!**

- 가만히 서있는 이 친구 는? ☐ 명
- 꼬치 를 들고있는 사람? ☐ 명
- 고양이 는? ☐ 마리
- 가방을 메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 명

☐ 칸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곱하면 얼마일까요?



글그림·채운희(문예디자인)

한동나눔 간증 공모전 수상작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가?

이사론 (글로벌리더십학부, 16학번)



“로템관 4층 411호, 내 방 속 나의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바람 같이 스쳐 지나간 지난 11주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처음엔 미소가 내 얼굴에 번지다가 어느 순간 내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동안 이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수많은 시간 동안 공부와 씨름을 한 적도 있고, 중간고사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못 견뎌 울면서 기도 한 적도 있다.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하지 못해 속상한 적도 많았지만 그런 나를 따뜻하게 감싸준 새내기들이 있었고, 옆에서 든든하게 길잡이를 해준 훌륭한 학교 선배이자 인생 선배들인 새섬이 있었다. 그리고 나의 개인 공간 안에서도 한동 기숙사 생활의 즐거움을 공유해준 가장 재미있고 이제는 가족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나의 룸메이트들이 있었다. 함께 밤새 수다를 떨면서 배꼽 잡고 웃을 때가 많은 사람들이며, 배달 음식의 황홀한 세상을 알려준 사람들이다. 덕분에 즐거움만큼 몸무게도 는 것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룸메이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걸 보니, HANST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룸메이트를 위한 기도가 응답 된 것이 틀림없다. 그럼 수업은 어떠했나? 힘든 몸을 이끌고 수업 들으러 가면 피곤함도 잠시, 고등학교와는 사뭇 다른 수업 분위기와 교수님의 깊이 있는 가르침이 지친 머리를 깨워주고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곤 했다. 물론 과제 폭탄, 팀 프로젝트, 퀴즈와 시험 때문에 힘든 적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내 안에 즐거움은 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짧은 순간 동안에 시간을 되돌아보며 문득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떠올리며 한동대학교에 도착하기 전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오랜 여정 끝에 이번 봄에 16학번 새내기로 한동대학교에서 공부 하게 된 기쁨의 세대 이사론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일 년전 까지만 해도 저는 지구 반대편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는 영원한 봄의 나라라고 불리는 과테말라에 있었습니다. 선교에 비전이 있으셨던 부모님 아래에 저는 오빠와 함께 과테말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학교들 중 유일하게 미국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독교 학교인 과테말라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유치원생 때 입학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어린 나이부터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저의 믿음을 키워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영어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서 공부의 재미도 처음 알게 되었고, 우리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커뮤니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너무 좋아서, 이 학교를 너무 사랑해서, 저는 하나님에게 꼭 이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삼학년이 된 무렵, 저는 우리 교회에 ‘Mtree’ 라는 회사의 대표이신 최영환님께서 간증을 하러 오신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들었던 그분의 간증은 5분, 10분 듣다 보니 제 마음에 작은 두근거림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의 아주 독특한 스토리 때문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신 이 분은, 열정과 믿음 하나만 가지고 세계의 많은 훌륭한 분들을 만나면서 연결고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뻗어 나갔던 이분의 열정은 한국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는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불린다고 말씀 해주셨고, 이곳에서는 세상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무가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눠준 한동대학교의 이야기와 놀라운 간증은 저에게 너무나도 멋지게 들렸으며, 저의

마음을 뜨겁게 사로잡았습니다. 한동대학교를 떠올리는 순간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려졌고,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분이 보여주신 한동대학교의 홍보 영상 속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라는 슬로건을 읽은 순간 제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아주 비슷한 분위기의 한동대학교를 다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만으로도 저는 즐겁고 흥분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바라볼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정말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어머니에게 기쁨을 안겨드리고, 아버지에게는 애교를 부리며 힘이 되어주고, 오빠에게는 친구처럼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어주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주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성실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된 후에 저희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심장과 신장의 기능을 많이 잃으셨던 상황에 이르셨고 당장 투석과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과테말라 병원의 시설들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난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게 저희 교회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는 홀로 한국으로 입국을 하시고 병원 생활을 시작 하셔야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슈퍼맨이셨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떠난 후, 어린 저에게는 그 빈자리가 많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신 후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모든 생계의 책임을 맡게 되셨고, 혼자 짊어지기에 너무 막중한 책임이었습니다. 불규칙적인 수익으로 인해 조금씩 저의 학교 회비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던 학교는 저에게 당분간 나오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학교 축구장에서 몇 시간 동안 펄펄 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졸업을 못 할 것만 같았고 한동대학교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힘든 사정을 들으셨던 저의 멘토와 선생님이셨던 Mrs. Larimer는 제가 그 동안 동아리에서 그렸던 저의 그림들을 스캔해서 전시회를 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저의 그림으로 전시회를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씩 저의 그림들을 구입했으며, 전시회가 모두 끝난 후 들어온 수익은 그동안 밀렸던 회비를 모두 내고 남은 정도였습니다.

이 복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많은 귀한 우정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 때에도 기댈 수 있는, 의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 한명은 저의 단짝친구인 아이였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자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졸업이 다가왔을 때, 과테말라 대표로 한국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와 4년 등록금 그리고 생활비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장학금이었습니다. 비록 한 명만 선정되는 장학금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같이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이 장학금이 한국에 있는 아빠를 7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이자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힘들게 모든 자료들과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이 장학금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밤을 샜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발표되는 날 저의 친구가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슬퍼하지도 못하고 제 감정이 뭔지 많이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아야 했지만,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한동대학교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졸업을 한 뒤에 한동대학교에 입학 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비록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 후에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기회의 문이 닫힌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선생님께서 열어주신 전시회를 통해 얻어진 돈을 보태서 힘들게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얻게 되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와 7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시차 적응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에 보낼 서류 준비에 몰두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수도 없이 고치고 또

고치고, 서류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밤새 올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점검을 마친 뒤 저는 저의 서류들을 학교에 제출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금강제화라는 아울렛 점에서 생의 첫 아르바이트를 통해 매일 하루에 9시간동안 손님들 맞으면서 한국어 실력도 열심히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점에서 일하는 것을 마치고, 영상 번역으로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한동대학교 결과를 기다리다 저는 잠시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아닌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다라면 저는 아마도 장학금에 맞춰서 다른 대학을 위해 준비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동대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 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한동대학교에서 합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등록금과 입학금이 면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합격하고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HANST 가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저와 같은 새내기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한동 대학교의 첫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마지막 날에 “기쁨의 세대! Be the Light!”를 모두 함께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비로소 진정한 한동인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참된 행복을 학교에서 지내는 날마다 느꼈습니다.

벌써 11주차에 접어들어 학교 축제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그 동안 팀 사람들과 아끼는 새내기들을 통해 크고 작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지만 그 보다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을 인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슬로건을 책임지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귀한 인재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입니다. 이 슬로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가는 선배들의 용기 덕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과테말라 소녀에게도 작은 희망이 생기고, 뜨거운 열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더 완벽한 기쁨의 세대 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모든 귀한 경험들을 선물해준 하나님과 한동대학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 감사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H)



한동나눔 간증 공모전 수상작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조혜진 (글로벌리더십학부, 16학번)



나는 비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어렸을 때 무언가가 갖고 싶거나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을 때 보고 들은 것은 있어서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깎지 낀 채 속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은 어렴풋이 난다. 교회를 다녔던 기억도 난다.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고 먹는 간식이 맛있어서,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서, 찬양하는 음악의 멜로디가 좋아서 등 아이스러운 이유일 것이다. 좀 더 자란 후에는 진지한 태도를 가지지 않고 교회를 가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모독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의외의 인연으로 '한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내가 줄곧 '포항'에 살아왔다는 이유도 한 몫 했다. 단순히 지리적인 이점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한동대학교와의 연계프로그램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친구들보다 한동대학교의 매력을 미리 알 수 있었고, 몇 번의 체험활동으로 한동대를 가 볼 기회가 많았던 결과 나는 입학 전부터 '도랑'레스토랑이 있고, 도서관 안에 히즈빈스 카페가 있으며 스승의 날에는 교수님 오피스를 꾸미는 문화가 있다는 것 까지 섭렵했었다. 또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한동대 선배들에게 듣는 한동에서의 생활이나 학교 만족도는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캠퍼스 생활과 거의 부합했다. 더불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배워서 남주냐?'라는 말로 공부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자극시켰으나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의 맛을 느껴본 후로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한동대의 모토가 부쩍 와닿았었다. 더욱이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있어 한동의 팀제도와 여러 공동체생활은 나를 한동으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마음은 고3, 7월 가장 큰 절정에 달했다. 유튜브로 HanST영상을 연도별로 찾아보고 홍보영상도 끊임없이 봤던 것 같다. 기독교인이 아닌 내가 한동대학교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걱정스러워하시던 고3 담임 생님의 권유로 G-IMPACT캠프를 참가한 것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타지에서 온 친구와 비전을 나누면서 가까워지고 교수님의 강의도 미리 맛보고 캠프가 끝난 후에도 조 도우미 언니와 친구들과의 그룹채팅방의 열기가 식지 않는 것을 보며, 한동대학교가 희망 1순위로 굳혀지면서 한동의 기적을 또 한번 느꼈었다.

더불어 이 캠프는 내가 한동인이 되었을 때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이라고 미리 생각해두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G-IMPACT캠프의 조 도우미와, 새내기 섬김이 제도 등을 통해 나는 한동만의 자랑을 하나 발견했다. 다른 대학교에는 선배들의 군기가 아직도 남아있다. 말하자면 '대물림'같은 건데 자신이 당했기 때문에 후배에게도 똑같이 해주려는 못된 규율이다. 한동에서도 이런 대물림이 있다. 하지만 '착한 대물림'이다. 자신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파스해서 후배들에게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늘 도우미와 같은 역할은 자원해서 하는데도 경쟁률이 항상 높다고 한다. 파스한 한동인의 마음을 조금 빨리 느낀 나는 이렇게 한동인이 되고자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먹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으로서의 한동인은 늘 주변인들로 하여금 관심과, 전도, 그리고 걱정 어린 시선을 받기 마련이다. 어쩌면 나는, 그리고 지금의 나로서는 비기독교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치우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진화론이었으나 창조론으로 생각을 바꾼 김영길 초대 총장님처럼 언젠가 갈대상자를 읽고 나도 책을 읽으면서 하나의 가설일 뿐인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맞는 생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내 자신을 보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더불어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더불어 한동대 학회 일원으로 고등학교 때 내 멘토였던 언니가 졸업할 땐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솔직히 조금은 겁이 난다. 그들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왔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또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종교를 떠나 '기독교'도 하나의 교양이다. '탈무드'와 같이 '성경'은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지혜와 도움을 안겨준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마음에 와닿는 성경구절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나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대단한 일을 해냈어도 자신이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덕이라 생각하여 모든 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독교인의 겸손한 자세도 배우고 싶다. 하지만 아직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기도도 드리고 싶고, 찬양도 드리고 싶지만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기도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기식 기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 생각해서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친구들이,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지 참 궁금하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을 해본다.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조사결과를 다룬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 회개를 통해 죄책감을 떨친다는 식의 내용 이었는데 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못 만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 더불어 '내가 만약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온다면,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윤리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물론 하면 안되지만)만 용서를 구해야지'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한동대학교 생활을 짧게나마 하면서 한동인에 대한 생각은 그렇다. 정말 교회 사람의 정석이자 표본인 것 같다. 성급한 일반화로 보일 수 있겠지만 좋은 뜻의 일반화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따스롭고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늘 뒤를 돌아보고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한다. 아마 '밥고'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도 소외되는 이 없게 다함께 밥을 먹자는 취지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다. 부끄럽지만 나는 한동에 입학하기 전, 사소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주인없는 물건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속 가져가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눈치를 보게 된다. 하지만 그 '눈치'라는게 부정적인 눈치가 아닌 긍정적인 눈치라는 것도 깨달았다. '눈치' 때문에 나는 잠시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직한 척 행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한 행동이 3주가 지나면 완전한 습관으로 몸에 배듯, 한동인들을 만나고, 보고, 배우면서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잃어버린 지갑을 주인이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행동은 당연한 행위이지만 각박해지고 돈이 중요해진 사회에서는 지갑을 찾아준 사건이 이슈가 되어 '대한민국은 아직 살 만한가 봅니다.'라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요즘, 화장실에 걸려있는 지갑을 보고 i에 올려 주인을 찾아줬던 일이 생각난다. 그들도 그렇기에, 1000원이라도 주인을 찾아주려 애쓰기에, 또 자신의 돈이 아니면 가져가지 않는 그들이기에 이 아름다운 문화를 보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아직도 한동에 다니면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감히 내가 다녀도 되는 학교인가? 공부에 열정이 가득하고, 밥을 새서 과제를 하더라도 힘들어하는 기색 없는 주변 선배들, 귀중품을 잃어버려도 마음에 안심이 되는 양심적인 모습, 서로의 일을 자신의 일인냥 챙겨주는 훈훈한 한동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대단한 분이실까? 그리고 나도 그러한 훈훈한 한동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H)

팀워크(TimWork) 장학생들의 감사

한동대학교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TimWork(팀워크) 장학 제도가 있다. Tim은 Timothy(디모데)의 줄임말로 '디모데 사역'이라는 뜻이다. 한동대에는 세계 60여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공부한다. 팀워크 후원금을 통해 이들이 한동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정직과 지식을 배워가길 기대한다.

ChhayOu 초아이, 오우 | 캄보디아

제가 항상 꿈꿔왔던 외국에서의 대학생살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팀워크 장학금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은 국제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팀워크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제가 꿈꿔왔던 한동에서의 생활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준 팀워크 장학금이 없었다면 저와 같은 외국학생들은 해외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학금을 통해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며 제 비전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에 대해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에서의 생활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통해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꼭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베풀며 살고 싶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언젠가 어려운 학생들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Tamar Haddad 하다드, 타마르 | 팔레스타인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에게 팀워크 장학금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있어 평생 함께 할 친구와 같이,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독립하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고향인 팔레스타인을 떠나 외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어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아닌 팀워크 장학금을 통해 개인적인 독립이 가능했습니다. 항상 기억하며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정적 지원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을 위해 베풀고 또 아너코드를 지키는 한동의 아름다운 한국인들과의 만남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팔레스타인에도 한동인들과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에게 장학금을 허락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동에서의 생활을 통해 정말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oeurk Udom 도에우르크, 우돔 | 캄보디아

먼저 저에게 팀워크 장학금을 허락해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동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를 더 공부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기회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기대했던 한국 생활처럼 팀워크장학금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저는 다른 교환학생과 한국학생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한국학생들의 공부방식 그리고 한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문화에 대해 정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입는 한복도 저에게 흥미로웠고, 약간 매울 때도 있지만 한국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또한 교환학생들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들의 언어로 간단히 인사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들에게 캄보디아 문화에 대해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한국학생들과 교환학생들이 저를 너무 잘 보살펴줘서 마치 고향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반겨주고 많은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통해 한국교육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육시스템은 제가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저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고,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캄보디아에서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Jowana Rinawi 리나위, 조와나 | 팔레스타인

한동은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진실한 삶과 내 이웃의 삶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며 나보다 다른 이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다른사람과 가까워지고 그들을 사랑해 본 적은 이전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네요. 한동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낸 시간은 일생에 단 한번 뿐인 경험이었고, 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팀워크 장학금 덕분에 항공권을 구입하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곳에서 생활하며 드는 여러 비용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부모님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돈에 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국제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으로 인해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후원자님의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의 영혼에 깃들기를, 감사합니다.



법학도 테레페 사헤루 에티오피아에서 HILS로

삶의 가치를 바꿔 준 한동으로의 여정



한동대학교 법률대학원(HILS)에서 공부하는 테레페 사헤루(Terefe Sahelu)는 2015년 2월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으로 먼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모국에서 연방 검찰 검사로 3년, 연방법원 판사로 2년 활동한 유망한 법률가였다. 법을 더 공부하기 위해 유럽행을 생각하던 그가 어떻게 한동에 오게 되었을까?

에티오피아에서 겪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테레페는 기독교 배경의 집안에서 자라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없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이었다. 한 언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테레페는 기독 신앙은 잘 몰랐지만 교인으로서 죄로 여겨지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교사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면 이곳을 떠나라고 했고, 그는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 교회로 향해 가며 함께 기도했다. 그 순간 성령님이 마음에 찾아오셨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항상 순탄치는 않았다. 대학 시절 그는 신의 존재와 종교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철학 수업을 수강하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혼란을 겪었다. ‘신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낸 생각일 뿐’이라는 말에 흔들리기도 했다.

한동으로 향하게 된 계기

모국에서 법조계에 일하던 그는 처음엔 유럽 유학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던 중 포항에 있는친구를 통해 한동대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동을 알아가며 그는 기독신앙이 어떻게 법과 연관될 수 있을 지 고민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성령님이 준 확신을 바탕으로 법을 더 공부하려는 마음으로 한동행을 결정했다.

테레페는 한동에 와서 특히 사람들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크게 낯선 느낌이 들지 않았았던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동체를 통해 받은 감격

한동에서 그에게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제정호 학우이다. 테레페는 어린 시절 사고로 한쪽 눈을 다쳤지만 치료를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제정호 학우는 그의 다친 눈에 관해 물었고 한국 병원에 가는 것을 제안하며 첫 진료 비용까지 부담해 주었다.

테레페는 곧 눈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준비된 일 이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에는 모든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마냥 기뻐지만 수술 비용과 이식 받을 각막이 필요했다.

그는 수술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다시 병원에 갔을 때 병원 관계자가 80%의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눈 각막을 기부 받는 일이었다. 담당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기부 목록에서 그의 순서가 밀려나 더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그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일자리를 찾아 수술 비용을 마련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일자리를 찾으려던 첫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부 받을 각막이 있다고 말이지요.” 마침 연락이 온 때는 겨울 방학이 시작하는 시기였다. 학기 중이었다면 수술을 받느라 수업을 제대로 못 할 터였다. 수술 비용의 일부는 교회에서 영어 성경공부를 함께했던 믿음의 지체들이 도움을 주었다. “저는 학교와 교회 공동체에 빚을 졌습니다. 공동체가 베푼 따뜻한 애 감동했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했습니다. 제정호 학우와 HILS 공동체, 동부교회 영어 성경 모임이 저를 친구, 형제, 가족으로 돌보아주면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 것에 감사합니다”

목표 달성보다 유익했던 과정에서 얻은 가치

그는 이 과정을 통해 귀한 가치를 배웠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보다 과정을 통해 얻는 교훈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과정들을 인내하면서 내가 단련되고 성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테레페에게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물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지가 나무에 달려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전이나 소명은 나무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올바른 삶을 사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당장 바라보고 있는 공부 계획으로는 미국 법이나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기도하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㉞

한동의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

이선기 후원자



한동대 05학번의 사위와 07학번의 딸이 캠퍼스 커플이 되어 졸업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낳고 마냥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날, 눈물로 새벽을 깨우는 하루가 시작 되었다.

2016년 3월 11일 새벽에 사위가 심장마비로 인한 일시적 사망 상태가 되었다.

호흡은 정지 되었고 딸과 119대원들의 필사적인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박동은 돌아 왔지만 무의식 상태로 급히 병원으로 후송 되었다. 뇌손상과 장기손상을 막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저체온 치료가 시작 되었고 72시간동안 수면제를 투여해 강제 수면을 시켜 놓았다. 72시간이 지났지만 정밀 MRI 검사 일정 때문에 20시간을 더 수면 상태를 유지 시켜야만 했다. 사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깨어나지 못해 식물인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다.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사위의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하나님 차라리 날 거두어 가시라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 되었다. 무의식 상태로 3일이 지나가는데도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직 기도 밖에는... 눈물의 기도가 밥이 되었고 근심과 탄식이 침상을 적셨다. 3일이 되던 오후에 딸의 얼굴도 사위의 얼굴도 모르는 한동대 선배라는 한 자매가 중보기도 올라온 것 보고 무작정 찾아 왔다. 서로 모르는 선후배 사이지만 지금 자기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했다. S그룹에 다니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로 있어서 지금 후배의 충격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잘 알기 때문에 무조건 와서 손이라도 잡아 주려고 그냥 달려 왔다고 한다. 울먹이며 신앙서적 한권을 손에 쥐어 주고 병원으로 얼른 가봐야 한다며 급히 돌아갔다. 자신의 아픔과 두려움이 태산같이 무거울텐데 자꾸만 눈물이 나고 목이 메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었다.

저녁 8시부터 스스로 깨어 나도록 수면 상태를 중단했다. 3일 동안 침묵 하셨던 하나님께서 4일 아침 묵상중에 시편 9편 1절~2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 전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주께서 치료해 주신 이 놀라운 기사를 너는 전하라는 것이었다. 영혼의 깊은 감사로 오랫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사위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거듭 거듭 고백했다.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가득했다. 그리고 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내일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깨어날 거야, 걱정 하지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하며 선포하기 시작했다.

혼수상태 후 5일째 아침이 되었다.

응답 받은대로 사위는 뇌손상도 장기 손상도 없이 기적같이 깨어났다. 의사는 ``1%도 안되는 기적``이라며 ``왜 이렇게 심장이 멈추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 생각에, 함께 아파해준 사람들 생각에, 감사하다고 자꾸만 우는 딸과 사위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그렇게 병원에서 13일째 되던 날 퇴원을 했다. 우리에겐 13년이 흐른것 같았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깊어졌고 첫사랑이 회복 되었다.

고난의 통로를 지나오면서 나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었다. 여호와 라파! 사위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어떤 말씀과 목적이 있으신 걸까?

어떤 경로로 우리의 사연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심으로 중보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한동대 신앙공동체 LAMB의 동문들, 한동대 여러 교수님들과 사모님들, 한동대 네비게이트 지체들, 두 집안의 섬기는 교회와 지인들의 여러 교회에서도 합심해서 기도를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리가 모르는 많은 분들로 하여금 기도의 명을 지게 하셨을까? 사위가 병원에 있는 동안 한동대 신앙공동체 LAMB의 카톡에 수많은 위로의 글들과, 기도의 메세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목적이 한동을 향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기적같이 깨어난 사위를 통해 중보기도를 해준 모든 지체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셨고, 이들은 한동대와 관련된 공통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동인을 향해, 어떤 메세지를 전하라는것일까?

먼저 떠오른 것은 내 딸과 사위를 비롯해 한동의 졸업생들이 바쁘고 지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작은 불꽃처럼 흩어져 갔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마음의 병이 깊어 세상과 하나님을 외면했던 한동인도 있었고, 암투병으로, 질병으로, 고통과 낙망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동인들의 소식을 딸을 통해 듣게 하셨다. 가슴 한켠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소명을 느꼈다. 무엇보다 한동 선배와의 만남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한동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메세지였다. 사위를 통하여 수 많은 지체들에게 먼저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한동인과 학교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진주처럼 아픈 내면의 상처들이 하나님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지 않았던가.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한동인에게 이루어지옵소서. 한동대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에 커다란 희망이었으며 한동인들의 지성과 인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세상을 변화 시키고 열방을 향하여 예수의 심장으로 나아가길 원하였다. 지금도 이러한 한동을 위하여 누군가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한동人들이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는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품고, 기쁜 마음으로 광야로 가지 않겠는가?

청년들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일 2:14 (H)



선교사 자녀와 새터민 학생들을 향한 온누리교회 양재캠퍼스 권사님들의 사랑

지난 6월 7일 온누리교회 양재캠퍼스 권사회 권사님 9명이 한동대학교를 방문하여 140여명의 선교사 자녀와 새터민 학생들을 위해 러브피스트(love feast)를 열었다.

양재캠퍼스 권사회는 최근 4년전부터 매년 1회씩 선교사 자녀와 새터민 학생들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으며, 이 날도 따뜻한 식사의 교제와 함께 선교사 자녀들의 찬양, 간증, 선물 증정 등 풍성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장순홍 총장은 “우리 대학은 선교사 자녀들과 새터민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들을 응원하고 있다. 오늘처럼 이렇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과 격려를 해주셔서 학생들이 더 자신감을 갖고 행복해 하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진다. 선교사 자녀와 새터민 학생들은 한국교회와 선교사역, 통일사역에 중요한 인적 자원이며 탁월한 글로벌 역량을 펼칠 소중한 인재가 될 것이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해 줄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재캠퍼스 권사회에 감사의 마음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교사 자녀 모임을 이끌고 있는 국제어문학부 마민호 교수는 “저 역시 중국에서 공부를 할 때 청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현지에서 사역을 하시던 온누리교회 박종길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 헌신훈련을 받았다. 현지 선교사역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도 하며, 그래서 현지 선교사 사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 때 한국에 돌아가면 선교사 자녀를 섬기는 것을 또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했다. 이후 한동대학교 교수로 오게 되었고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선교사역이 중요하면 그 일을 섬기는 선교사가 중요하고 그와 함께 선교사 자녀도 정말 중요하다.”라며 이렇게 중요한 일에 꾸준히 지원을 해 주시는 양재캠퍼스 권사회에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양재캠퍼스 권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이정자 권사는 인사 대신 준비한 기도문으로 학생들을 축복해 주었으며, 학생들은 축복송을 통해 사랑으로 섬겨주신 양재캠퍼스 권사회에 감사를 표현했다.



선교사 자녀를 위한 기도

-이정자 권사-

하나님 여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 태어난 아들도 있고 한국에 있다가 아버지와 함께 간 딸들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을 아버지의 비전으로 걸어간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과 딸들의 마음속에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육신의 아버지의 삶이 있습니다
 동일한 문화속에 살아도 힘든 사춘기를, 그곳에서 지나오면서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눈은 이들을 보고 계셨고 품에 안으시며 이들을 향한 주님의 소망이 있으셔서 이곳에 부르 신줄 믿습니다
 한분 한분 당신의 아들딸임을 확증하여 주시고 이 아들과 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며 이들을 향해 쏟아 부었던 부모님의 기도가 밑알이 되어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눈물이 가슴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맺힘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100배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해 가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생의 길들이 열리고 어려움중에 있을 때도 돕는 자를 붙
 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하고 알게 하시고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눈이 열려져 주님을 호흡하며 먹게 해주셔서 실제로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복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이들을 떠나지 않고 보고 계시며 삶의 질문들이 해석되어져서 마음이
 행복하여 다윗의 찬양이 이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이셨군요!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축복하시고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은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인생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기도를 응답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자녀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장순흥 총장 동정

1월5일 포항상공회의소 2016년 신년인사회
 1월11일 대한적십자사 2016년 신년인사회
 1월18일 한국크리스천포럼 강연, 4/14운동과 다음 세대 전도전략,
 CGNTV <하늘빛항기>녹화
 1월25일~2월4일 인도/네팔 지역 출장, 한-네팔 적정기술거점센터 개소식 및
 한동대-인도 비즈니스 협의회 컨퍼런스 외
 2월12일 교무위원 워크숍
 2월18일 LINC 사업단 엑스포-비전선포식
 2월19일 제18회 학위수여식
 2월22일 입학식
 2월23일~2월24일 교수수련회
 3월7일 개교기념식
 3월13일 새로나교회 대학부 캠퍼스 파송예배 특강
 3월14일 전국학부모기도회 정기총회
 3월23일 경상매일신문 제 5기 창조경제 조찬포럼 강연
 3월25일 제16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회
 4월1일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녹화
 4월7일 UN 공보국 방한 DPI 협력 지위 및 컨퍼런스 설명회
 4월11일 4/14원도우 포럼: 다음 세대와 미디어
 4월25일 분당학부모기도회 신입생 학부모 환영회
 4월30일 DGIST 특강
 5월5일 학부체육대회
 5월9일 유네스코 유니트윈 주관대학 공동 세미나
 5월10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주재 대구경북 교육관련기관 간담회
 5월27일 제10차 ACE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 포럼
 5월28일 제4회 한동스타트업 경진대회
 5월30일~6월1일 제 66차 유엔 NGO 컨퍼런스
 6월15일 전국교역자부인연합회 제 26회 총회 및 수련회 특강
 6월17일 몽골 IFE-한동대학교 공동교육과정 졸업식
 6월22일~6월27일 뉴욕 출장, 제 66차 유엔 NGO 컨퍼런스 성과보고회 외
 6월26일 맨하탄 온누리교회, 뉴저지 온누리교회 특강
 6월29일 평촌새중앙교회 특강
 6월30일 직원연수 및 포항해양경비안전서 특강
 7월4일 한동대-국제적십자위원회 워크숍 축사
 7월8일 장로회전국연합회 영성수련회 특강
 7월9일~7월12일 실리콘밸리 출장, 산호세온누리교회 특강 및
 한동대학교 창업/인턴십 프로그램 외
 7월21일~7월25일 LA 지역 출장, 교회 특강 및 후원자 미팅

김영길 명예총장·글로벌 후원회장 동정

1월30일 청년한동(의료동문모임) 특강
 2월16일 한동학부모기도회 모임 참석
 2월19일 한동대 졸업식 참석
 2월26일 선농과학기술원 신년만찬회 참석
 3월8일 B+성과관리센터 특강
 3월10일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참석
 3월13일 기쁨이 있는교회 간중
 3월14일 분당학부모기도회 모임 참석
 3월22일~29일 베트남 NTT 대학 국제컨퍼런스 참석, 특강
 4월3일 예수비전교회 간중
 4월24일 온누리 브릿지에배 말씀
 5월1일 서현교회 청년집회 간중
 5월10일 온누리교회CEO스쿨 특강
 5월21일 장로아카데미 강의
 5월26일 창조과학회 창조신앙과교육 특강
 5월29일~30일 제 66차 UN DPI/NGO 컨퍼런스 참석 / 축사
 6월3일 온누리교회 장로수련회 집회 말씀
 6월5일 우리응답교회 간중
 6월11일 숭실대학교 글로벌리더십 토론회 특강

김영길 명예총장·글로벌후원회장 특강 및 집회 문의

한동글로벌후원회 사무소 02-3443-3232 | hguseoul@handong.edu

김영길 명예총장님께서 정기 검진 중 지난 5월 16일(월) 저녁 화장암 1기로 진단을 받으신 후, 두 달동안 항암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치료 후 MRI 검사 결과 체장에 있는 종양은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에 있던 상세 불명의 작은 Spot이 2개에서 6개로 더 늘어나서 항암제와 투여 방법을 바꾸어 다시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개월간의 치료에도 잘 견디게 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새로운 치료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중보 부탁 드립니다.

기도제목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총장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최고의 의사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도록
 -새로운 항암제가 간에 있는 Spot 들과 체장에 있는 종양을 박멸하도록
 -7/25(월) 시작하는 세번째 사이클의 2개월간 치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치료의 부작용 없이 잘 견디어 내시기를
 -총장님과 사모님께 하늘의 평강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며, 간호하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도록

국민일보 미션리포트 <역경의 열매> 코너에 연재(2016.6.13~7.8)된
 김영길 명예총장님의 간증 <http://sarang.handong.edu/ygkim>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한동대, 버추얼모션과 산학 협약...150억 원 상당 SW 기증 받아 공학용 구조동역학 소프트웨어 다폴(DAFUL) 기증 받아

지난 6월 30일 교내 소회의실에서 버추얼모션(주)(대표 배대성)과 산학 협력 체결 및 다폴(DAFUL) 소프트웨어 기증식을 열었다. 버추얼모션(주)는 구조동역학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공학용 다폴 소프트웨어 50카 피 약 150억 원 상당을 한동대에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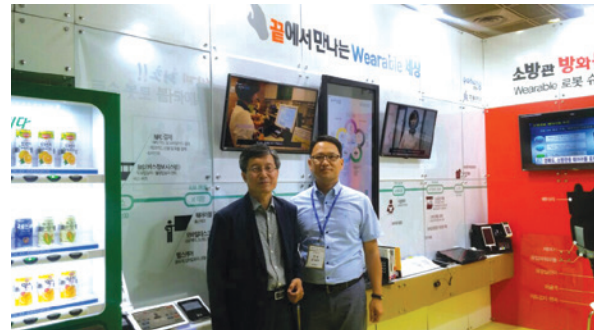
이번 기증식과 산학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구조동역학 해석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폴 관련 인프라와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다폴 소프트웨어는 다물체 동역학해석과 유연체 응력해석(구조역학해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응용공학(CAE)용 소프트웨어로 자동차, 건설 중장비, 전자기기 등의 각종 기계시스템 설계 시 해석에 필요한 도구이다. 특히, 기존의 유한요소(FEM) 메쉬(Mesh) 생성작업 없이 CAD 모델로부터 직접 해석모델을 구성하여 구조동역학 해석 수행이 가능한 메쉬프리(Meshfree)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에서는 그동안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비싼 가격과 교육지원에 대한 애로점으로 인해 구조동역학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학부 교육과정에 도입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나, 다폴을 관련 교과목과 기전 융합설계(졸업과제)에 활용하면서 기계역학 설계 해석 분야에 있어서 학생들의 이해와 성취도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폴은 '다폴다'에서 유래된 용어이며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차별화 된 방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다물체 구조 동역학 문제를 풀어냄으로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외국산 소프트웨어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 CAD/CAE 시장에서 꾸준히 저변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차량 동역학 해석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와 DAFUL/Car 모듈을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현대자동차 내에서 표준 차량동역학 해석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한동대 스마트·핀테크 캠퍼스 구축 사례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경상북도 우수 사례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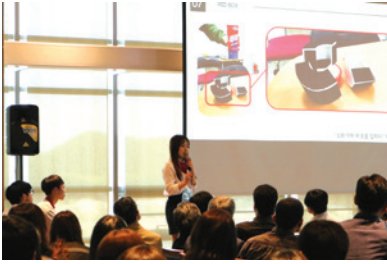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행사에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 스마트·핀테크 캠퍼스 구축 사례가 경상북도 우수 사례로 전시되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정부 3.0 생활화 추진 전략의 하나로 정부3.0의 핵심 성과와 미래 모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도·시·군을 비롯한 지방 공기업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3.0 핵심성과물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혁신 성공 사례를 전시하여 국가혁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과 연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동대 스마트·핀테크 캠퍼스 구축 사례는 경상북도 우수 사례로 코엑스 C홀 맞춤형관에 배치되어 전시되었다. 경상북도 부스 안에 한동대의 스마트·핀테크 캠퍼스에 구축된 서비스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동대의 NFC(비접촉식 근거리무선통신)학생증을 사용하여 셔틀버스를 타고 학교로 들어와 출석체크서비스를 이용해 출석확인을 하고 수업 후, 식당에서 핀테크 기반 스마트 결제를 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시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NFC 기반 도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서를 대출하고 열람실 좌석을 선택하는 등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포항시가 한동대의 핀테크 노하우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창·취업 활성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포항경제를 꿈꾸며 추진하고 있는 양덕 상가 핀테크 구축 시범사업의 모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역 상점에서는 고객을 관리하고 시민들은 할인과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동대 학생들이 이미 구축된 스마트 캠퍼스 시스템을 적용하고 응용하여 만든 아이 택시(i-taxi) 앱도 소개 되었으며, 이 앱은 모바일 기반 택시 및 자차 카풀 서비스로, 현재 한동대 내 학생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더치페이 가능하게 하고 택시 결제 금액을 자동 산정하여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다. 한동대의 스마트캠퍼스는 포항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경상북도 전역으로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항시와 한동대가 함께 하는 ‘청중참여형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열려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는 지난 5월 28일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제4회 RPM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을 개최했다. 4회를 맞은 이 대회는 미래를 이끌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한동대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4년 11월 처음 시작된 이 대회는 3회까지 한동대 교내에서 열렸지만, 이번 대회는 ‘스타트업’의 진흥을 위해 포항시와 한동대가 공동 주최하여 포항시민 누구나 함께 청중평가단으로 참여하고 질의를 통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대회를 구성했다.

이번 경연에는 총 13개 팀이 참여해 각 팀당 2분 30초간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3분간 청중평가단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심사위원단과 청중평가단의 최종 평가 결과 ▲소통이(박정원, 이사야, 박진열, 박선동) ▲위셰프(WeChef)(임정섭, 안소미, 최원영) ▲수리수리막수리(채주찬, 백은진, 김도희, 이경수) ▲카페인 프로젝트(도승우, 이익성) ▲구넷(Goo-Dat)(박현제, 김소연)의 5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팀 전원에게는 3주간 실리콘밸리, 상하이, 이스라엘(협의 중)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현지 탐방 및 체험 기회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왕복 항공권 및 현지 숙소 등을 지원받으며 다양한 현지 기업가들을 만나고, 현지에서 스타트업 교육 강연 등을 들을 예정이다.



한동대 학생팀, ‘제8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금상, 은상 수상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 학생팀들이 지난 5월 20일 대전 카이스트 문지캠퍼스에서 개최된 ‘제8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금상, 은상을 받았다.

전산전자공학부 황성수 교수가 지도하는 3개의 팀은 ▲전맹자와 저시력자를 위한 모바일 신문 애플리케이션 ▲아이 메이크 잇(Eye Make It!) ▲색각 이상자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참가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성호 학생은 “작년부터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던 친구들과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평생 소외된 이웃의 필요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이번 수상을 기회로 앞으로 꾸준히 연구할 원동력을 얻었다. 또한, 한동대 내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IT 기술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는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성수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배워서 남주자’는 한동대의 가치를 실현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소외계층의 기술 활용이 오히려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학생이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회는 과학기술과 구매력으로부터 소외된 이웃을 향한 적정기술 설계, 지속가능 디자인 아이템 발굴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에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한국연구재단 지구촌기술나눔센터, (사)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KAIST 사회기술혁신연구소(RISTI), 적정기술학회, 서울대학교 화공분야 연구인력양성사업단, 우석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사)나눔과기술이 주관하며 전국 대학생 70개 팀 315명이 참여했다.



한동대, ‘미디어 분야’ 기업이 뽑은 최우수대학에 선정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가 산업계에서 뽑은 최우수대학에 선정됐다. 지난 4월 2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동대는 ‘미디어 분야(언론정보문화학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 입장에서 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직무역량, 필수 교과목 등을 제시하고 대학 교육과정이 이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금속, 게임, 미디어, 식품 등 4개 분야의 관련 학과(부)가 설치된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56개 대학의 99개 학과(부)가 참여했다.

평가위원회에는 두산중공업, 엔씨소프트, MBC, 샘표식품 등 총 34개 기업의 임·직원이 참여했고, 설문조사 평가에는 1,703개 기업이 협조했다.



한동대, 국내 대학 최초로 유엔공보국 NGO 기관으로 등록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가 대학교로서는 국내 최초로 유엔공보국(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NGO 네트워크에 들어갔다. 지난 4월 28일에 유엔공보국 NGO 위원회에서는 한동대학교를 NGO 기관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DPI NGO 기관으로 등록된 해외 대학에는 컬럼비아대학교(SIPA), 뉴저지 주립대학교, 조지메이슨대학교 등이 있다.

DPI에 등록된 NGO들은 유엔사무총장이 제시한 우선 과제들을 포함한 유엔의 주요 이슈를 사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알리고, 지속가능 개발목표, 인신매매, 기후변화, 지속가능에너지, 핵 안보, 불법 약물 매매 등과 같은 공동의 과제를 풀어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각종 유엔 행사에 참석 혹은 협력을 통하여 위와 같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한동대는 유엔아카데미임팩트 허브대학, 유네스코 유니트윈(UNESCO-UNITWIN) 주관대학으로 유엔 기관과 함께 여러 차례 협력하며, 유엔의 정신, 특히 지속가능 개발과 고등교육기관 역량 강화, 세계시민교육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14년에는 한동대 도서관이 뉴욕 유엔본부 주재 유엔 출판위원회(United Nations Publication Board)로부터 유엔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받는 등, 유엔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서 맺어왔다.

※ 용어 설명

유엔공보국(UNDPPI)은 총회결의안 13조에 의거하여 1946년에 설립되었다. 공보국은 라디오, TV, 인쇄물, 인터넷, 화상 회의, 등 여러 매체들을 사용하여 유엔활동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유엔공보국(UNDPPI)은 유엔의 이상과 활동을 전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인류의 평화, 발전, 인권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출처: <유엔공보국 홈페이지 <http://www.un.org/>>



한동대, 우간다에서 적정기술기반 기업가정신 워크숍 실시

-마을주민과 대학생 주도로 발굴된 사업 아이템의 지속적인 개발 지원 및 공동 연구 계획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한동대학교(장순홍 총장) 그린적정기술연구협력센터는 우간다 쿠미에 소재한 쿠미대학교(Kumi University) 내에 우간다 혁신기술거점센터(Uganda Innovative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Center: UI TEC)를 설립하고 적정기술기반 기업가정신 워크숍(Appropriate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 Training: ATET)을 실시했다.

이 워크숍은 한동대가 유네스코 유니트윈(UNESCO-UNITWIN) 주관 대학으로서 수행하는 유니트윈(UNITWIN) 사업 중 창업아이템 발굴과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하나이다. 현지 대학생과 현지민에게 적정기술 기반의 창업과 공동체 기업 보급으로 우간다 지역사회의 자립과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번 ATET 워크숍에는 우간다 쿠미대학교 학생 37명, 우간다 쿠미지역 NGO IDI 스태프 및 주민 15명 등 모두 52명이 참가했으며, 우간다 쿠미대학교 교수 5명이 함께 참관하면서 추후 쿠미대학교 주도의 워크숍 개최를 위한 교수인력양성도 함께 진행됐다. 그 외에 쿠미대학교 경영학부생 3명이 마을 주민팀의 멘토로 참가하여 학생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했다.

ATET 워크숍의 교육 내용은 한국의 경제성장, 기업가정신, 적정기술과 비즈니스,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젠(Zen) 캔버스, 사업계획 발표 등 문제인식부터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실제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내용으로 3박 4일간 집중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장순홍 총장은 “정기적인 ATET을 통해 우간다 지역 문제를 해결할 예비 기업가 양성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기반 모험적인 사업가(Entrepreneur)를 양성하여 우간다의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중추적 인재를 길러내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동대는 2008년부터 GEP(Global Engineering Project), 개도국과 학기술지원기관협력사업, 글로벌 해외전공봉사 사업,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아카데미,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프로그램, 네팔혁신기술거점센터 사업 등 개도국 지원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 시행해오고 있다.

후원안내

갈대상자(일반기부금)

하나님께서 작은 갈대상자를 통해 모세를 지키셨고, 훗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길러내셨습니다. (출2:3)
작지만 큰 대학,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지도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한동대학교를 향한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통해 한동의 갈대가 더욱 견고히 엮이기를 소망합니다.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한동문(졸업동문)

한동문은 오직 '한동의 졸업 동문'만 참여할 수 있는 갈대상자 후원 캠페인으로 매월 1만원 이상 후원 가능합니다.
한동의 미래를 위해 함께 중보하고 응원할 수 있는 한동의 동문
한동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은 한동 동문
한동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줄 바로 그 한 사람! 한 동문 을 기다립니다
*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505-094401-00104

여호수아 장학금 (선교사·목회자 자녀 선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선교사·목회자 자녀는 졸업 이후 부모님을 따라, 복음 전파와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의 선교사·목회자 자녀가 한국 교회와 열방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가 되도록,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것처럼 (신 31:23)
이들을 응원하고 중보할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호수아 장학금은 후원자와 1:1 매칭으로 연결되며 등록장학금 1년 600만원, 생활장학금 1년 120만원 중 선택 및 분할 후원 가능)
* 한동대학교 여호수아 : 하나은행 910-910002-68604

보아스(일반기부금)

"어머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만을 가지고 낯선 곳을 향해 기꺼이 믿음의 걸음을 떼었던 롯.
하나님께서 이 굳건한 믿음의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한동대학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안은 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걸음의 끝에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르는 한동 믿음의 행진에 많은 격려와 참여 부탁 드립니다.
*(학)한동대학교 보아스 : 하나은행 910-910002-57705 (한구좌 100만원 이상)

팀워크(교육 선교 프로그램)

• TimWork(팀워크) : Tim은 Timothy(디모데)의 줄임말로 '디모데 사역'이라는 뜻
한동에는 전 세계 60여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지식과 정직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그 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의 연합전선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이들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갖습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 준 바울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에 파송될 이 시대의 청년 디모데들에게 바울이 되어주십시오.
* 한동대학교 팀워크 : 하나은행 518-910023-11205

한동만나

만나는 성경에서 광야 속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동만나는 한동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후원자와 한동 공동체가 아너코드로 함께 채워가는 사랑의 위로, 따뜻한 한 끼입니다.
1만원을 후원하시면 한동만나 4끼를 재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에 따라 끼니 변경)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건축기금

한동대학교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세계 각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꿈을 품고 더불어 성장해가는 글로벌 타운(Global Town)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글로벌 리더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한동 글로벌 타운은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을 통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따뜻한 정성과 기도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곳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희망합니다.
* 한동대학교 건축기금 : 하나은행 518-910023-12905

한동 첫 열매 (첫 월급)

첫 열매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첫 월급 기부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첫 마음과 수고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이 사랑은 자신이 그러하였듯 후배들이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한동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기부금을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히길 기대합니다.
*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부자님께서 특정한 사용용도를 지정하시는 기부금입니다.
기부자님의 뜻이 담긴 만큼 지정 기부금은 한동과 학생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 갈대상자 및 보아스 기부금은 법인 및 법인의 대학 운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외 기부금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대학에 사용됩니다.

후원가입 정보변경·종료안내

1.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를 통한 신청
2. 직접 신청은 한동대 대외협력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과 세금

출연하신 기부금은 100%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가능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에서 발급 가능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전화: 054-260-1063~7
팩스: 054-260-1069
E-mail: sarang@handong.edu

한동대학교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8-13 라임타워 12층
전화: 02-3443-3232
팩스: 02-3446-3939
E-mail: hguseoul@handong.edu

한동대학교 미주 후원회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Inc.(HIFI)
3200 Westhurst Lane, Oakton, VA 22124-1748 U.S.A
Tel: 703-627-8050
E-mail: ksc@bskb.com



신규 기부자 명단

2016.1.1~2016.6.30 536명

강순모	김경숙	김영준	김지윤	노경숙	박은미	서용석	안진욱	윤용현	이상일	이현준	정경란	조찬영	최태진
강승구	김경애	김영진	김지현	노진기	박은자	서주찬	양동영	윤용환	이석주	이현호	정명진	조혜신	최페트라
강은희	김경완	김영태	김지현	류경희	박인	석호수	양승현	윤은경	이선진	이형근	정미경	주순영	최현미
강주은	김경원	김영호	김진숙	류근배	박재성	성시준	양신철	윤인	이승용	이혜림	정승혜	주원균	편동국
강태길	김관웅	김예원	김찬휘	류포식	박재현	성은애	양인정	윤장선	이영주	이혜성	정승환	지명희	피성훈
강화숙	김남수	김예찬	김창업	문성관	박정은	손현주	양희두	윤정우	이영희	이환웅	정양자	지선희	하승완
계기원	김다복	김용구	김창영	문한솔	박정임	송강일	엄용수	윤정현	이영희	이효윤	정언우	지은상	한기옥
고광수	김단희	김용섭	김치복	민수기	박정화	송기양	오규석	윤종천	이예원	이휘은	정영경	차성애	한복희
고광철	김대현	김용욱	김태연	민훈기	박종구	송기원	오대경	윤진혁	이예준	임동원	정영복	차안나	한송이
고선탁	김도완	김욱한	김태현	박경석	박종윤	송은택	오대성	윤철순	이예형	임동하	정인균	차은비	한의영
고영은	김도형	김원근	김학수	박계수	박준형	송재웅	오수진	윤하은	이옥남	임명안	정인우	채병득	한재희
고영해	김만수	김윤수	김한솔	박기남	박진필	송태성	오순녀	윤현석	이용준	임병욱	정인준	최경희	한정혜
고은총	김명호	김윤진	김해연	박기주	박찬영	송하나	오순향	은희준	이원복	임석희	정종열	최규승	한정화
고종규	김미리	김은비	김해택	박다영	박찬희	송현준	오영식	이경량	이은실	임소리	정주희	최규철	한현민
곽다은	김미숙	김은주	김행숙	박다예	박창현	신경이	오원재	이경미	이재구	임수민	정준용	최병석	함현정
곽민정	김민선	김용표	김현수	박대범	박천길	신관우	오주은	이경석	이재성	임영묵	정지민	최병선	허건
곽병선	김보경	김익숙	김현아	박대홍	박찬성	신동원	오창식	이경숙	이재임	임영태	정지원	최병윤	허경환
곽영지	김봉남	김이레	김현이	박덕식	박춘길	신비전	오충환	이광인	이재호	임종식	정찬용	최새봄	허미영
곽재영	김선영	김인환	김현지	박동락	박하민	신상규	오현아	이광현	이재효	임주성	정창일	최선미	허민
곽진환	김성은	김일석	김형길	박미옥	박해숙	신순오	오혜미	이기성	이정길	임지원	정태상	최성진	허민
구덕호	김성재	김재곤	김혜선	박상록	박호성	신용길	우동화	이길	이정민	임혜민	정하람	최애란	허민
구민성	김송희	김재빈	김혜정	박상묵	박희성	신용도	우희창	이남진	이정섭	장병환	정하은	최연승	허포미
구민정	김순애	김재익	김활란	박성은	박희승	신은정	원종범	이다은	이정화	장여경	정한나	최예슬	현영수
구정선	김순양	김정순	김희현	박성춘	배꽃하얀	신정순	원종수	이동규	이종하	장정희	정현달	최용호	홍경열
국종대	김순정	김정은	김효진	박성혁	배상균	신정식	유병문	이동범	이종훈	장준호	정현욱	최원식	홍광표
국현승	김시운	김정인	김훈규	박성호	배선빈	신주은	유인경	이동호	이주석	장태양	정현주	최유라	홍기표
권능	김시춘	김조강	김휘동	박세열	배승예	신춘옥	유장춘	이동훈	이주은	장행진	정혜림	최유진	홍승훈
권상혁	김신균	김종석	김휘숙	박소형	배찬민	신하림	유재황	이명훈	이주형	장훈재	정휘재	최은비	홍오표
권세경	김신명	김종영	김희열	박수정	백승연	신현구	윤대중	이미숙	이주혜	전당희	정희순	최은일	황겨레
권애경	김안나	김종혁	김희정	박신아	백요셉	신형식	윤미화	이미향	이준희	전선재	조예람	최인선	황보은
권오수	김연화	김주혁	김화찬	박연숙	백이삭	심연화	윤상우	이미희	이지열	전수진	조예성	최정미	황선미
권혁화	김영균	김주희	남국현	박영식	백인재	심정운	윤상현	이민우	이찬	전영달	조윤지	최정자	황신원
김가나	김영대	김준	남명숙	박영환	백종욱	심하숨	윤석문	이상래	이태경	전예린	조은희	최종경	황용범
김가윤	김영동	김준자	남민우	박예림	변영환	안길환	윤석영	이상복	이하늘	전인선	조이수	최준섭	황태현
김감록	김영만	김준표	남성호	박옥기	서강석	안성진	윤수민	이상수	이한진	전인송	조인숙	최중철	Park Eric
김강산	김영숙	김지숙	남수민	박옥순	서경덕	안수현	윤여찬	이상우	이현정	전주영	조정인	최진석	
김경목	김영식	김지연	남옥현	박옥현	서영범	안영주	윤예희	이상일	이현주	전해찬	조종현	최춘자	
개포감리교회				수영로교회장학회				호치민은누리교회				강남수서학부모기도회	
대전새누리교회				송인교회				(주)메디진				강동송파학부모기도회	
덕수교회				한결한식부페				(주)미루디앤피					
예담한의원				한동대총동문회				(주)신세계푸드					
온누리교회양재캠퍼스권사회				한동대총학생회				(주)엑트					
우리들교회				한동목회자동문모임				(주)크레이지랩					



보내는 사람 _____

□ □ □ □ □

* 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시거나 접은 후 봉인하여 우편 송부해 주십시오.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6.3.10~2018.3.9

포항정량동우체국
제40002호

(학)한동대학교 후원팀 귀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전화 (054)260-1063 / 팩스 (054)260-1069

3 7 5 5 4

본 크리에

* 후원금의 100%는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후원금의 사용처는 후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후원금의 사용처는 후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후원종류	목적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선수비용	선수비용	한동대학교	518-9100023-12905	한동대학교
선수비용	선수비용	한동대학교	518-9100007-34704	한동대학교
선수비용	선수비용	한동대학교	518-9100007-34704	한동대학교
선수비용	선수비용	한동대학교	518-9100023-11205	한동대학교
선수비용	선수비용	한동대학교	518-9100002-57705	한동대학교
선수비용	선수비용	한동대학교	518-9100002-55405	한동대학교
선수비용	선수비용	한동대학교	518-9100002-55405	한동대학교
선수비용	선수비용	한동대학교	518-9100002-55405	한동대학교

후원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 성명 _____ (서명)

여호수아가 여기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 부모님을 보며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비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장애인 인식 개선과 제가 경험한 다양한 문화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며, 저 또한 더 큰 교육가가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한동대 11학번 이하늘 (카작/우즈베크 선교사 자녀, 2015년 레드스쿨 교사)



NAVER 여호수아 장학금

선교사·목회자 자녀들을 격려할 여호수아 후원자를 찾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는 한국 교회와 열방으로 나아갈 리더가 필요합니다.
한동대에는 전교생 중 700여명, 약 17%(2015년 1학기 기준)가 선교사·목회자 자녀로, 이 곳에서 미래의 여호수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신31:23) 라고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격려한 것처럼 한동의 선교사·목회자 자녀를 응원하고 중보할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한동대 여호수아 선교사·목회자 자녀 장학금 후원

(대상) 한동대 재학생 선교사·목회자 자녀 중 비전이 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장학금 2016년부터 1학기 1회, 1년 2회 지급)
(금액) 생활장학금 (1년 120만원, 월정기 10만원) | 등록장학금 (1년 600만원, 월정기 50만원)
(혜택) 후원자와 선교사·목회자 자녀 1:1매칭, 자기 소개서 및 1학기 1회(1년 2회) 감사편지 전달

후원 참여 방법

직접 후원 하나은행 910-910002-68604 한동대학교여호수아 | 상담요청 문자 및 전화문의 054-260-1065
홈페이지 <http://sarang.handong.edu/joshua> | 문의 메일 sarang@handong.edu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동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